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7호 【루계 제25180호】 주체105(2016)년 2월 6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 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자

조선혁명은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승승장구해나가는 성스러운 혁명이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한 전당과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이 높은 단계에로 심화되여나가는 과정이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로정이다.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위대한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기상이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시기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련합회의 확대회의는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수령, 당, 군대, 인민의 불패의 통일체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은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당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게 하는 불멸의 대강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는 전투적기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하며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고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 충정의 일념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야 합니다.》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선군조선의 불패성의 상징이고 모든 승리와 기적의 원천이다. 위대한 단결로 시작된 우리 혁명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단결의 위력으로 언제나 백전백승만을 떨쳐왔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되고 혁명의 년대기마다 굳건히 이어져온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전통이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확고히 계승되고있는 것은 백두산대국의 더없는 자랑이고 크나큰 힘이다.

혁명은 곧 단결이며 가장 공고하고 순결한 혁명적단결을 실현하는데서 기본은 수령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우리 당이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전환의 시기에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강령을 제시한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는데서 력사적리정표로 된다.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 당건설과 당활동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빛나게 구현하여온 위대한 당의 명도에 의하여 우리 당과 혁명대오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더욱 억세여졌다.

혁명이 대를 이어 계속되고 세대가 부단히 교체되는것만큼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장엄하고 보람찬 투쟁은 우리 당과 군대를 철두철미 수령의 당, 수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며 천만군민이 령도자와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반혁명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세인을 놀래우는 민족사적인 사변들과 경이적인 성과들을 이룩해나가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오직 당의 령도밑에 풀어나가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인민군당위원회 련합회의 확대회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천연요새를 이루며 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의 일대 과시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밑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빛내여나가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오직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진행해나가는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이다. 우리 당의 존재와 강화발전의 빛나는 력사도, 우리 당의 높은 령도적권위와 불패의 위력도, 장장 70여성상 시대와 력사,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린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도 전당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님들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온데 있다. 전당과 온 사회에 철두철미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해나갈 때 우리 당이 가장 존엄높고 권위있는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끝없이 위용떨치게 된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 이것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이며 핵이다. 이번 확대회의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틀어쥐고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전진시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숭고한 발현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당의 위업의 필승불패성을 온 누리에 시위하는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고 우리 당의 령도력과 전투적위력을 천백배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첫째도 둘째도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당과 혁명을 보위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절정적담보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당이 정한 백승의 침로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비상히 놀라운 속도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어디서 어떤 광풍이 휘몰아쳐와도 주체의 신념과 배짱을 지니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가는 우리 당의 위업과 우리 혁명의 힘찬 전진에 집집한 온갖 적대세력들은 우리가 자강력으로 강해지고 잘사는것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으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여기에서 주되는 목적이 다름아닌 령도자의 두리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어떻게 하나 떼여내려는것이다. 적들은 어리석게도 우리 당과 혁명대오안에서 사상적동요나 변질이 있기를 곰꾸고있다. 현실은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이 당과 혁명, 조국의 운명과 전도와 관련되는 가장 중대한 문제라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대가 열백번 바뀌고 하늘땅이 뒤집힌대도 오직 자기 령도자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어떤 역경이 닥쳐온대도 당과 사상과 뜻, 정과 의리를 끝까지 함께하는 사상과 신념의 최강자들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라는 확고한 신조, 경애하는 원수님은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이시라는 투철한 신념, 언제 어디서나 당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강철의 의지, 당의 구상과 결심을 무조건 현실로 꽃피우는 결사관철의 정신,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의 핵이다. 원쑤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만난시련이 겹쌓일수록 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정의 일편단심은 더욱더 불타 타오르고있다.

우리가 가야 할 혁명의 길은 아직 멀고 험난하다. 전당, 전군, 전민이 이번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인민군당위원회 련합회의 확대회의정신을 받들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나갈 때 우리 당과 혁명은 일심의 억척보루에 의하여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필승불패할것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반드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력사적사명감을 떠올라 쪼아박고 어디서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가리키는 한길로만 억세게 나아가며 당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사상적기초이며 근본초석이다. 세기를 이어온 반미전면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념원이 실현된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자고 해도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혁명열, 투쟁열로 심장을 불태우는 사상과 신념의 거인으로 억세게 자라나야 한다. 혁명적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의 열렬한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확고한 립장과 자세, 당의 혁명사상과 맥두의 칼바람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하여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하려는 투철한 각오, 당에서 준 과업을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무조건 끝까지 수행하는 혁명적기풍이 우리모두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맥박쳐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해나가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공쳐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의 운명도 미래도 있으며 원수님만을 끝까지 따르는 길에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철리를 정대로 쪼아박듯 심장깊이 새겨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의지대로 살며 투쟁해나가는 혁명적기풍, 모든 문제를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강철같은 규률을 확립해야 한다.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마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사업하고 생활하며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사소한 요소와도 날카롭게 투쟁하여야 한다.

전군에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견결히 수호하고 더욱 튼튼히 다지는데서 나서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인민군장병들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총대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할 하나의 사상, 하나의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며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추켜들고 오직 최고사령관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만 나아가야 한다.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일하에 하나같이 움직이고 당의 명령, 지시를 최단기간내에 끝까지 수행하는 혁명적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하며 혁명가가 믿을것은 자기자신밖에 없다는것을 자각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려는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새로운 기적, 새로운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이 밝힌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진군에서도 인민군대가 계속 앞장에 서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선구자, 기수로서의 영예를 빛내여나가야 한다.

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데서 누구보다 견실하고 투철해야 할 사람들은 다름아닌 우리 일군들이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내세워준 당의 사랑과 믿음, 인민의 기대를 운명의 명줄로 간직하고 당성단련을 위하여 부단히 수양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당성단련을 게을리하면 변질되여 혁명의 배신자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늘 당정책으로 머리를 씻으며 조직생활의 용광로속에서 자신들을 끊임없이 혁명화해나가야 한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처럼 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강한 혁명적원칙성, 높은 사업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사업실적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인민의 머리우에 군림하는 세도군, 관료배는 우리 혁명대오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것을 뼈에 새기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을 확고한 신조로 삼고 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충복,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청렴결백하며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참다운 인격의 소유자, 인민앞에 무한히 겸손하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인민의 충실한 심부름군이 되여야 한다.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을 수령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불굴의 투사들로 키워야 한다.

전당, 전군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을 튼튼히 꾸려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당일군, 정치일군대렬을 잘 꾸려야 한다.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에서는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키고 인민생활향상에 당사업의 주되는 힘을 넣으며 당 제7차대회를 계기로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의 일심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온갖 이색적인 요소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강도높이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공친 우리의 일심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도 깨뜨릴수도 없으며 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모두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총돌격, 총매진하자

천만군민의 백옥같은 충정이 펼쳐놓은 위인칭송의 꽃바다

제20차 김정일화축전준비사업 마감단계에서 활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제20차 김정일화축전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일군들은 김정일화축전을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태양의 꽃축전으로 빛내이도록 하는데 모든 사업을 지향시켜나가고있다.

이들은 축전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일정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으며 여러 단위들에 나가 축전준비사업을 적극 도와주고있다.

선군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심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홍형성도안을 특색있게 완성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토환경보호성, 경흥지도국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들에서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것과 함께 자기 단위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사상적대가 뚜렷하고 조형예술성이 보장된 전시대형성도안들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영생축원의 꽃바다가 펼쳐질 축전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기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한몸을 초불처럼 장그리 불태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충정에 떠받들려 각지의 온실들에서는 지금 태양의 꽃들이 만발하고있다.

인민무력부의 일군들과 재배공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모시고 따르려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뜨거운 마음들이 그대로 자양분이 되여 붉게붉게 피여난 김정일화들로 축전장을 훌륭히 장식하기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고있다.

불리한 날씨와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꽃재배에 필요한 빛과 온습도조건을 적임적으로 보장해나가고있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인민봉사총국, 대성은행, 경흥업성, 봉화지도국,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외교단사업총국, 대외건설지도국을 비롯한 많은 단위의 일군들과 재배공들은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불멸의 꽃을 정성다해 키우고있다.

수도의 많은 가정들에서도 축전장을 장식할 태양의 꽃들을 정성다해 가꾸고있다.

전국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천세만세 길이 빛내여나갈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안고 불멸의 꽃전시준비사업에 백옥같은 충정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대홍지도국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에서— 본사기자 리동금 찍음

전력생산의 불길 세차게 타오른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여야 합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열의안고 증산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1월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기세로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온 나라에 차넘치는 총진군의 전투적분위기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 생산자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전력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면서 발전설비들의 대보수를 동시에 밀고나가고있다.

당이 제시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추켜들고 자력갱생직장에 내열세멘트생산기지를 일떠세우고 보이라와 타빈발전기의 정비보수를 다그쳐 종전보다 운영효률을 더 높이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모든 직장들에서 한kW의 전력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한 공격전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중요공정을 담당한 열생산단위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열생산1직장과 2직장의 일군들은 료대별생산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면서 로동자들이 보이라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운영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또한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일상적인 힘을 넣어 보이라들이 만가동할수 있게 하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혁신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모든 조작공, 운전공들이 주인다운 자각과 책임성으로 보이라들을 잘 관리운영하고 업간점검과 순회점검을 강화하면서 사소한 이상요소들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있다.

4호와 8호, 11호보이라의 로동자들이 1월생산과제를 빛나게 완수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총화한 기세로 뜻깊은 2월에도 계속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타빈직장에서도 집단주의적경쟁열풍속에 전력생산투쟁에 세찬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곳 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들에 대한 료대별인계인수와 점검보수를 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면서 설비관리에 큰 힘을 넣고있다. 1호와 5호타빈발전기의 조작공, 운전공들과 담당기사들이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언제나 설비들의 만부하를 책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1월에 이어 2월에도 생산을 늘여나가고있다.

하차직장과 운탄직장의 로동자들은 석탄하차작업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면서 보이라들에 석탄을 제때에 보장해주고있다. 보수부문 직장들에서는 9호보이라와 3호타빈발전기대보수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새해농사차비에 력량을 총집중

황해북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높이 세운 알곡생산계획을 기어이 수행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당면한 새해농사차비전투에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적으로 1월 한달동안에만도 207만여t의 질좋은 거름과 55만여t의 흙보산비료, 2만6천여t의 소석회를 생산하고 112만여t의 거름을 협동밭에 실어냈다. 그리고 4천여정보의 흙팔이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월에 들어와서도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소석회와 흙보산비료생산을 비롯하여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미는것과 함께 활창대와 나래를 비롯한 모판자재준비를 착실히 갖추도록 하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두벌농사면적이 늘어나는데 맞게 거름생산을 늘이고 기후풍토에 맞는 품종선택을 바로하도록 하고있다.

도에서는 도, 시, 군금기관, 기업소들과 공장들에서 거름을 더 많이 생산하여 협동밭들에 실어내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중소농기구전시회를 의의있게 진행하여 각종 중소농기구들과 영농물자들을 농촌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도의 책임일군들이 농촌지원사업의 앞장에 서고있다. 책임일군들은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과 황주군 룡천협동농장, 서흥군 법안협동농장을 비롯한 령도업적단위들에 자주 나가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농업근로자들이 올해농사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교무주동하고있다.

사리원시에서는 미곡협동농장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모든 농장들에서 이 농장의 경험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황주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농사에서 기어이 장훈을 부를 사상적각오를 안고 떨쳐나 거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그리하여 요즘 매일 3천여t의 거름을 생산하고 2500여t의 거름을 실어내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곡산군, 서흥군, 연탄군을 비롯한 다른 군들에서도 력량을 총집중하여 새해농사차비에서 날마다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첫달계획을 수행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

채취기계공업국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채취기계공업국에서 올해 첫달계획을 141%로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당 제7차대회전까지 상반년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해 계속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채취기계공업국과 그아래 여러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보내줄 각종 뽐프와 전동기, 광차를 비롯한 채취설비들과 부속품생산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훨씬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국일군들은 올해초부터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높은 채취설비생산성과로 맞이할 목표를 세우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 안주뽐프공장, 천천착암기공장을 비롯한 아래단위들에 내려가 자재보장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앞질러가며 세웠다.

안주뽐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로들에 합리적인 온도조종장치를 도입한데 이어 열풍식용선로를 정상가동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또한 쇠물프레스에 의한 주물품의 비중을 높여 지난 1월 생산계획을 200%로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자강력제일주의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생산조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힘찬 돌격전을 벌려 1월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평양탄광기계공장과 신의주광산기계공장, 통림전기공장, 장산전기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설비, 부속품을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올해 첫 전투부터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해 총돌격전에 떨쳐나선 국아래 각지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불타는 애국열의에 의해 채취설비생산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리영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련합회의 확대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지자

백두산대국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련합회의 확대회의는 수령, 당, 군대,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천백배로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은 오늘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의 침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우리 당이 향도하는 혁명의 앞길에 영광의 만리길이 펼쳐지고있다. 백두의 칼바람을 원동력으로 삼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노도치는 주체혁명의 줄기찬 앙양은 우리 일심단결의 대부대가 안아오는 조선의 거세찬 활력이다.

일심단결은 우리 당의 혁명성학이며 백두산대국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심단결은 주체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필승의 무기입니다.》

혁명은 단결이고 단결은 혁명이다.

오늘 조국땅우에 이룩되고있는 민족사적인 사변들과 경이적인 성과들은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는 위대한 혼연일체가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이다. 당을 결사옹위하는 천만군민의 단결된 위력이 있었기에 조국앞에 닥쳐왔던 위기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영웅청년신화와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될수 있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산악같이 일떠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새로운 천리마시대, 만리마시대가 펼쳐지고 선군조선의 국력을 만방에 과시하는 력사적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게 되였다. 일심단결이야말로 조국사수, 혁명보위의 최강의 무기이고 창조와 건설의 강력한 추진력이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실현한 불패의 통일체이다.

일심단결의 공고성과 위력은 사상적일색화에 있다. 우리 당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을 일심단결의 선결조건으로, 필수적요구로 내세우고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수령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배치되고 통일단결을 저해하는 이색적인 사상요소들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이였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이 심화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의 제일체현자, 제일판렬자들로 자라났으며 당과 혁명대오가 더욱 순결해지고 공고해졌다. 천만이 수령의 사상으로 숨쉬고 수령의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일심단결, 이것이 정치사상강국인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다.

오늘 우리의 일심단결은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속에서 그 위력이 비상히 강화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과학이고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은 생명선이고 만능의 백과전서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사업하고 생활하며 모든 문제들이 당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처리되는 강한 혁명적규률이 확립되였다. 사상전의 포성과 혁명적학습열풍속에서 천만군민이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사상과 신념의 거인들로 자라나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령도자와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우리 당의 참된 동지, 전우로 더욱 굳게 결속되였다. 혁명열, 투쟁열로 불타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과 의리로 받드는 군대와 인민이 천점만점의 성새를 이루고있기에 우리의 일심단결은 금성철벽이며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기치밑에 철옹성같이 다져진 무적의 성새이다.

당은 인민을 굳게 믿고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혼연일체의 밑바탕에는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무한한 헌신이 놓여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위력이자 일심단결의 공고성이고 불패성이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이 구호에는 인민을 하늘처럼 존대하고 받들어나가는 우리 당의 멸사복무의 의지가 력력히 슴배여있다. 민심을 일심단결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들의 키가는 기쁨과 행복속에서 더없는 보람을 찾는 어머니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전설들은 조국땅 그 어디에나 새겨져있다.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헌신적복무와 뜨거운 사랑은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낳고 당과 인민대중을 하나의 혈맥으로 굳게 이어놓았다.

오늘 인민대중제일주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도록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넘겨주신 인민사랑의 계주봉을 이어받아 인민을 위하여 뼈를 깎고 피를 바치며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일군, 생눈길, 진펄길을 앞장에서 헤치면서 인민이 바라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될것을 바라고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화원에 돌아난 독초와 칼은 세도와 관료주의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우리 당의 단호한 조치에 의하여 전당에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정신이 차넘치고 온 나라에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가는데 불패의 단결이 있고 영원한 승리가 있다.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강화하고 단결의 위력으로 이 땅우에 기어이 인민의 락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것이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력사의 풍풍을 길들이며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백승의 보검이다.

단결은 승리의 기치이고 무한대한 힘이다.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만 있으면 지구가 깨여진대도 무서울것이 없고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두려울것이 없다.

조선혁명의 력사는 그 개척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한걸음한걸음이 그대로 증명되는 난관으로 이어진 준엄한 행로였다. 가장 간고하고 복잡한 조건에서 혁명의 진퇴를 판가리하는 시련의 고비들을 수없이 헤쳐왔지만 단결로 시작된 우리 혁명은 언제나 활력에 넘쳐있었고 승리로 충만되어있었다.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복구건설, 미제의 끊임없는 새 전쟁도발책동, 혹심한 자연재해,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속에서 우리 혁명이 백승의 전통을 창조하고 꽃꽃이 이어온것은 력사의 기적이다. 일심단결은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조선혁명을 사소한 침체와 탈보도 없이 전진시켜온 근본원천이였으며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역풍을 순풍으로 돌려세운 강위력한 보검이였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을 제일 무서워하고있다.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심을 떨어뜨리고 당과 대중을 리탈시켜 우리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는 원쑤들의 책동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시공간의 제한없이,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도용하여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되고있다.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비렬한 심리모략전과 부르죠아사상문화적침투책동이 아무리 교활하고 악랄하여도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억척으로 다져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끄떡없다.

일심단결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혁명유산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단결의 위력으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것이다.

김 철 학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언해설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불변의 진로는 오직 주체의 한길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명언에는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절대불변의 무기로 틀어쥐고나가는 길에 혁명승리의 근본담보가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가리키는 주체의 한길로 변함없이 나아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사상이 탈색되면 붉은기가 퇴색된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사소한 탈색도 변색도 없이 순결하게 계승발전시켜야 하는것이 수령의 혁명사상이다.

주체의 한길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이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장구한 혁명령도의 나날에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과 전통, 풍부한 경험이 집대성되여있으며 우리 혁명의 근본원칙과 진로가 뚜렷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밑에 나아가는 주체의 한길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수천년민족사를 다하여서도 누릴수 없었던 모든 영광을 맞이하게 되였다. 우리가 그처럼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자기의 신념에 따라 꿋꿋이 전진할수 있은것도,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고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으로 될수 있은것도, 사회주의가 우리 인민의 생명으로, 생활로 더욱 소중히 간직될수 있은것도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였기때문이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조선혁명의 영원한 좌표, 기본주로를 따라 변함없이 나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드팀없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사상의 위대성은 그 시대성과 과학성, 영원한 생명력에 있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인민대중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사상, 혁명투쟁의 조건과 환경이 변하여도 영원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사상만이 불멸의 지도적지침으로 세기를 이어 빛을 뿌리게 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가 담겨져있다.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과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 총대중시사상과 그 계승발전인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리론을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계, 모든 분야의 전략과 전술,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고 최후승리를 위한 길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준다는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무궁무진한 생명력이 있다. 우리 혁명이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과 첨예한 정세속에서도 순간의 탈보나 사소한 탈선도 없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자고 하여도 그렇고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지고 그 위력을 높이 발휘하자고 하여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언은 우리 당과 인민이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론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본사기자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오직 당과 함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전당이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당도 많다. 그러나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기며 승승장구하여온 당은 조선로동당밖에 없다.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실현한 우리 당의 혁명적면모는 절대불변이다.

사 상 적 순 결 체

우리 당은 전당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된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이다.

당은 사상을 피줄기로 하여 존재하며 활동하는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이다. 사람의 몸안에 다른 형의 피가 섞이면 살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당도 당안에 다른 사상을 허용하면 자기 존재를 유지할수 없다.

우리 당의 지도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이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다.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여야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저히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진행해나갈수 있다. 전당에 오직 하나의 사상만이 꽉 차넘칠 때 이색적인 사상조류들이 발을 붙일수 없게 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상의 강자로 자라나게 된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 이것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이고 핵이다. 우리 당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인 불후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환히 꿰뚫도록 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키고 5대교양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강도높게 벌려나가는것은 바로 전당의 사상적일색화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전체 당원들이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말을 해도 당중앙과 한목소리로 말을 하고 사상도 하나, 신념도 하나, 투쟁기풍도 하나가 되여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사상적순결체를 이룬 우리 당의 참모습이 있다.

조 직 적 전 일 체

우리 당은 전당이 당중앙과 숨결을 같이해나가는 강위력한 당이다.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통일단결은 당의 생명이다. 세상만물이 핵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듯 수령은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이며 당의 령도는 곧 수령의 령도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항일의 철전만리를 헤치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였으며 전후 당에 도전하여나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고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였다. 그들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켰기에 우리 당은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올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이이 모시고 전당에 원수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칼날같은 기강이 철저히 세워져있는 혁명의 참모부가 바로 우리 당이다. 당중앙위원회로부터 말단기층조직인 당세포에 이르기까지 전당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즉시에 집행하고 보고하는 혁명적기풍이 확립되고 원수님의 유일적인 결론에 따라 모든 문제들을 처리해나가는 강한 혁명적질서와 규률이 세워져있다. 전당이 당중앙과 숨결을 같이하며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는데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이 있다.

행 동 의 통 일 체

우리 당은 전당이 당중앙과 발걸음을 같이해나가는 불패의 당이다.

행동의 통일성은 수령의 당의 본성적요구이다. 수령의 명령지시에 따라 전당이 한결같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질 때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전당의 행동의 통일은 령도자의 사상의지대로 움직일 때 이룩되게 된다. 생각을 해도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대로 생각하고 걸음을 걸어도 령도자의 보폭으로 걸으며 일을 해도 령도자의 투쟁정신으로 일해나가는것이 바로 행동의 통일이다. 당의 결정과 지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결사관철하려는 의지가 심장마다에 맥박치면 대중의 힘과 지혜는 하나의 목적실현에로 조직동원되고 혁명과 건설의 전진속도는 그만큼 빨라지게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발을 끼고 걸어나가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관이다. 수령의 품속에서 자라나 수령의 크나큰 신임과 인민의 기대속에 혁명의 지휘성원이 된 우리 일군들은 마땅히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에 근본바탕을 둔 인생관을 뼈속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 이것이 인생관은 인간의 삶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다.

다시말하여 인간의 삶의 본질과 목적, 인생의 가치와 참된 삶을 누리기 위한 방도는 무엇인가 하는데 대한 관점과 립장이다.

일군들이 지녀야 할 고결한 인생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한생을 값있게 빛내이자면 옳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 혁명적인생관의 성격과 내용은 그 기초에 놓여있는 혁명사상에 의하여 규정된다.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떠나서 우리 일군들의 고결한 인생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며 인민이 원한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들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관이고 한생의 좌우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인민을 위하여 오늘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고결한 인생관이다.

일군들이 인민을 위한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는것은 당과 인민의 혈맥을 굳건히 이어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혈연의 정을 맺고 원수님께 자기들의 운명과 미래를 다 맡기고있다. 한없이 소탈하고 겸허하시며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신분, 만민에게 따사롭고 자애에 넘친 친혈육의 정을 부어주시는분,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들으실때면 위대한 수호와 창조의 의지를 가다듬으시며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하시는 열과 정, 사랑의 최고화신이 바로 우리의 김정은동지이시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자기의 일터와 초소, 마을을 당중앙위원회 뜨락과 같이 여기고 항상 당과 심장의 말을 나누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백옥같은 애국충정을 다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은 우리 인민의 생명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정히 받들어 원수님의 사랑과 정이 인민들에게 그대로 가닿게 하여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일군들이다. 인민을 위해 한몸 다 바친 고결한 인생관을 지닌 일군만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참된 동지, 전우가 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의 혈연적뉴대가 더욱 굳건히 이어지게 하며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발도 헤쳐나가야 한다. 그 길에서 쓰러져 영영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인민을 위하여 뼈를 깎고 피를 바치는 일군이 당에 대한 인민의 신뢰심을 보위하고 우리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져나가는 참된 일군이다.

일군들이 인민을 위한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는것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의 혁명적본태를 살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틀어쥐고나가는 우리 당의 정치신조이다.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내세우는 우리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들앞에서 무한히 겸손하며 생눈길, 진창길을 앞장에서 헤치면서 인민이 바라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여 로동당만세소리, 일심단결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퍼지게 하여야 할 사람들이 우리 일군들이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지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일군들이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며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기 위해서는 인민을 위한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는것이 중요하다.

인민을 위한 인생관을 지니고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는 일군들에게서는 세도와 관료주의가 나올수 없다. 세도와 관료주의와의 투쟁은 단순히 사업방법과 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의 혁명적본태를 살려나가기 위한 사상전이다. 우리 당은 인민우에 군림하고 인민의 의사를 외면하며 인민의 존엄과 리익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을 심장에 가득 채우고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워나가는 일군이 오늘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모든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충복,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감으로써 우리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할것이다.

김 철 룡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갈 불타는 신념으로 끓어넘치는 일심단결의 대오가 용용히 흐른다.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따라 올해 농업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발표 2돐에 즈음하여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해나가는 길을 밝힌 불멸의 대강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울리기 위한 천만군민의 투쟁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를 발표하신 2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주체103(2014)년 2월 6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새 세기 농촌전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힌 강령적문헌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다. 인민들의 식탁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게 하자는것이 당의 의도이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이며 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이다. 우리 나라에 대한 압박과 경제제재를 강화하면서 우리 인민이 식량난을 겪게 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보려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의 흉심이다. 쌀을 더 많이 생산하는 길이 곧 인민들의 생존과 나라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을 지키는 길이다. 우리가 정치사상강국,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것만큼 농사를 잘 지어 식량을 자급자족하기만 하면 강성국가건설을 마음먹은대로 벼슬있게 내밀수 있으며 강성부흥의 앞날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농업전선에서 기어이 대승전고를 울리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을 다시금 심장깊이 새기고있는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한결같은 결심이고 의지이다.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본열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농업증산의 열쇠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시키는데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최근년간 더욱 심해진 이상기후현상은 농업부문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다. 엄혹한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인 농사에서도 기본은 사람들의 정신력이다. 정신력만 강하면 난관극복의 묘술도 나오고 기적창조의 방도도 생겨나는 법이다.

이것은 지난해 불리한 조건에서도 알곡생산에서 장훈을 부른 양덕군 태흥협동농장 제5작업반의 경험을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명도업적단위들이 수명의 올혼관철전에서 알장설데 대한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들인 이 작업반에서는 산골군이지만 강냉이농사뿐아니라 논벼농사도 잘 지어 정보당 10t이상의 소출을 낸 높은 목표를 세웠다. 농사가 잘 안되는 원인을 하늘이나 땅탓이 아니라 포전의 주인인 자신들의 낡은 관점에서 찾은 이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졌다는 주인다운 자각, 할수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산간지대의 기후조건에 맞는 우량품종을 선택하고 지대적조건에 맞는 농사방법을 받아들였으며 거름생산을 앞세워 지력을 높여 산골논농사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의 경험은 한해농사의 결실은 자연이 아니라 농사의 주인인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는데 달려있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농업전선의 기수, 전위투사는 다름아닌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다. 일군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모범을 보인 인민군대 지휘성원들처럼 들끓는 포전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이신작칙과 참신하고 박력있는 화선식정치사업, 선동사업으로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백배천배로 분출시킬 때 사대주의, 패배주의를 비롯한 온갖 잡사상, 잡귀신들이 발붙일수 없게 되며 높은 알곡생산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특히 농촌의 핵심이며 초급지휘성원인 분조장들이 분조관리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갈 때 농장원들이 주인다운 자각과 열의를 가지고 책임적으로 일해나갈수 있다.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것은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현대농사는 과학농사이며 뒤떨어진 재래식농법이나 낡은 경험만 가지고서는 알곡생산을 늘일수 없다.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조건에서 농업생산을 추켜세워 먹는 문제를 풀자면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조건에서 수확고가 높으면서도 비료를 적게 요구하고 생육기일이 짧으며 가물과 비바람, 병충해를 비롯한 여러가지 피해에 잘 견디는 품종을 얻어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대적특성과 자연기후조건에 맞게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두벌농사, 세벌농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옮기농법을 장려하려고 해도 농업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지난해 극악한 조건에서도 물절약형농법인 마른논갈이, 마른논써레치기와 논벼소식재배, 볼경재배, 이랑재배를 비롯한 여러가지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많은 단위들의 경험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특히 박천군 단산협동농장에서는 선진영농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훌륭한 작황을 마련하였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근적으로 제일 뒤떨어진 단위였던 농장에서는 현대농업발전추세를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물절약형농법의 하나인 볼경두둑재배방법을 받아들이고 자기 단위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새롭게 착상하고 실천해나갔으며 실정에 맞는 살초제치기방법도 연구하여 도입하였다. 결과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정보당 소출을 1t이상 증수하고 알곡생산의 지속적발전을 담보할수 있게 되였다.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하다.

농업부문에서도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하여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배우며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갈 때 애로와 난관은 문제로 되지 않으며 막혔던 길목도 열리게 된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오늘날 진짜배기실농군은 현대농업과학기술로 무장한 사람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과학기술로 만풍년을 안아오기 위해 힘껏 노력해야 한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는것은 농사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알곡소출을 거둘수 있게 하는 필수적요구이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이자 농업생산의 비약적장성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다그치며 새로운 관개시설들을 건설하고 현대적관수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관개체계를 완성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수리화, 전기화는 농업생산의 선차적문제이다. 물문제, 전기문제를 해결하여야 가물과 큰물에 의한 피해를 극복하고 농사에서 높고 안전한 소출을 보장할수 있으며 전기의 힘으로 여러가지 농사일을 쉽게 할수 있다. 강원도와 황해남도를 비롯하여 온 나라의 토지가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면모가 일신되고 개천—태성호, 백마—철산, 미루벌물길을 비롯한 자연흐름식물길들이 곳곳에 뻗어나간것은 위대한 당의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농사에서 비료는 만약과 같고 농기계는 무장장비와 같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주타격방향인 농업전선에 각종 비료와 현대적인 농기계, 부속품들을 어떻게 생산하여 보장해주는가에 따라서 농사의 승패가 좌우된다.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농기계전시장에 대한 현지지도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킨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지방별특성과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다용도화된 농기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창안제작하여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사회주의협동벌에 빡 차넘치게 하자는것이 당의 의도이다. 농업부문과 그 련관단위들에서 펜촌으로 피대를 돌리며 전시생산을 보장한 근자리로동계급의 투쟁정신으로 각종 뜨락또르부속품들과 우리 식의 토양관리기계, 씨뿌리기 및 비배관리기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일수 있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농업정책을 높이 받들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더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빛내이기 위하여 총돌격, 총떨쳐나가야 할것이다.

조 학 철

풍년로적가리 높이 쌓을 승리의 신심드높이

서해벌방농촌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우량품종과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며 영농공정별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알곡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이 발표된 때로부터 2돐을 맞는 이 시각 서해벌방의 농업근로자들이 깊이 새기는 진리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농사지으면 풍년이 든다.

종자선택과 포전별품종배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서한에서 농사에서는 종자가 기본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종자문제를 다수확의 열쇠로 찾아낸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의 일군들이 지난해농사에서 좋은 경험을 창조하였다.

농장의 생육적산온도와 토양의 특성, 다수확품종벼종자들의 생육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본데 기초하여 종자선택을 과학적으로 한것이였다.

무엇때문인가.

왕가물로 하여 농장에서는 물대기가 힘든 포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일군들은 자연기후조건을 탓하기 전에 자기 농장의 농사운명을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사상적각오를 안고 그 해결방도를 찾아나갔다.

일군들은 중요한 방도를 종자선택에서 찾았다. 물이 부족한 포전들에 중간늦종과 중간종의 논벼품종들을 적절히 배합하기로 한것이였다. 그것은 중간종의 논벼종자들이 생육기일이 짧아 가물피해를 극복할수 있다는 과학적인 담보가 있기때문이였다.

이것이 은을 냈다. 가물이 심하였지만 이렇게 품종을 선택한 결과 정보당 소출을 종전보다 1t이상 증수할수 있었다.

평안남도와 평양시에서도 중간종의 우량품종을 받아들임으로써 정보당 수백kg의 알곡증수과를 보았다.

직지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배치를 잘하고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라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로작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이다.

곽산군 남단협동농장에서는 품종배치를 잘하여 정보당 수백kg의 알곡을 증수하였다.

지난 시기 이 농장에서는 3가지 논벼종자들을 기본품종으로 정하고 지력이 높은 포전들에 배치하였다. 하지만 가을의 결실은 달랐다. 품종별수확고차이가 정보당 100kg 지어 200kg까지 되였다.

이것은 지력이 높다고 하여 무턱대고 아무 품종이나 배치하면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일군들은 품종배치를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합치였다.

그리하여 비료를 많이 받으면서 병견딜성이 센 품종들은 될수록 지력이 높은 포전에 배치하였다. 이런 품종들을 메마른 땅에 심으면 물질대사균형이 적지 않게 파괴되면서 수확고가 떨어진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지력이 보통인 포전에는 비료에 대한 요구성이 그리 높지 않으면서도 병견딜성이 센 이삭무게형품종을 배치하였다.

이렇게 찾아낸 알곡증수예비는 10%에 달하였다. 결과 지난해 농장에서는 맡겨진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당의 뜻대로 종자선택과 품종배치를 과학적으로 하는것이 한해농사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지난 시기의 경험을 통하여 이것을 확신한 서해벌방의 많은 농촌들에서 올해에 이 문제해결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다.

실한 모가 알찬 열매를 맺는다

오늘날 논벼농사는 에네르기 및 자원절약형의 논벼농사로 전환되고있다. 여기에서 기본은 논벼소식재배이며 그러자면 소식재배형모를 튼튼히 길러내는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숙천군 광천농장 제17작업반에서는 과학자들과의 련계밑에 속성모위주의 모기르기방법으로부터 발상태큰모기르기방법으로 대담하게 전환하였다. 그리고 논전체 면적에 평당 50—60포기로 소식재배하여 정보당 알곡을 10t이상 낸 다수확포전을 쏙 늘이였다.

사실 농장은 관수체계에서 맨 말단이다보니 작업반에서는 물때문에 애를 먹었다. 특히 대부분의 포전들이 간석지논이여서 가물때에는 염피해가 심하게 나타났다. 혁신적인 방도를 찾는 과정에 작업반초급일군들은 큰모를 받아들일 때 적은 물로 농사도 짓고 염피해도 막을수 있다는것을 확신하였다. 그것은 모를 크고 튼튼하게 길러 6월에 모내기를 하면 염피해극복능력이 높아지고 5월에 논에 대던 물을 쓰지 않기때문이였다.

도입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밭을 뱉치고 받은 알곡생산과제를 반드시 수행하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초급일군들은 남들이 뛰면 날뛰다는 배심으로 분발하여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결과 전면적에 큰모를 받아들임으로써 모판면적을 종전보다 65%로 줄이면서도 례년에 없는 풍만한 결실을 가져올수 있었다.

문덕군 룡림협동농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시기 농장에서는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해 지력도 높이였고 종자피복제도 받아들였다. 하지만 정보당 수확고는 7.5t수준에서 더 오르지 못하고있었다. 일군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큰모연구집단의 도움을 받으며 큰모에 의한 소식재배를 받아들이였다. 그리하여 농장에서는 정보당 8t, 최고 10t이상의 알곡을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현실은 깨우쳐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서한에서 밝혀주신 한길따라 곧바로 나아갈 때 농업전선에서의 대승전고를 울릴수 있다는것을.

올해농사에 떨쳐나선 서해벌방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풍년로적가리를 높이 쌓을 승리의 신심드높이 농사차비전투에서 련일 실적을 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주 창 일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성천군 상하협동농장 제1작업반에서

은을 내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거름이 나간것만큼 쌀이 들어온다. 이것이 성천군 상하협동농장 제1작업반의 농장원들이 찾은 교훈이다.

이 작업반은 이미전부터 농사와 축산에서도 군적으로 소문난 작업반으로 알려져있었다. 이런것으로 하여 작업반원들은 은근히 자부해왔다.

하지만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받아안은 작업반장 오경호동무는 새로운 결심을 품었다.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비추어볼 때 성과에 만족해하며 자화자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는 이 체계가 온이 나게 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 품을 들이였다.

집짐승마리수를 늘이는데 첫째가는 힘을 넣었다.

여기서 선차적인 문제로 제기한것은 먹이보장대책이였다. 지난 시기 돼지를 기르는데 많은 낟알이 있어야 했다. 결국 4~5정보의 땅을 잃은것으로 되였다. 때문에 이들은 비알곡먹이비중을 높이는데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그 과정에 청사료를 젖산균으로 처리하면 많은 알곡먹이를 절약할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이들은 강냉이송치를 포함한 청사료를 분쇄하여 땅속에 넣어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폐시켰다.

이렇게 하면 젖산균이 청사료속에 들어있는 당을 분해하여 젖산을 만드는데 집짐승들이 먹으면 소화흡수률이 높아지고 알곡먹이소비량도 줄일수 있었다.

이 먹이를 겨울철에 어미돼지에게 먹인 결과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새끼돼지생산을 늘일수 있었다.

돼지마리수가 늘어나자 배설물량이 많아졌다.

초급일군들은 이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강냉이뿌리로 부식토를 만든 경우를 놓고보자.

사실 작업반에서는 부식토를 주로 남알짚이나 클거름을 리용하여 생산하였다. 하지만 비류강기슭의 모래기가 많은 땅이다보니 해마다 많은 부식질이 요구되였다.

방도가 없겠는가. 이때 그들은 거름생산은 곧 알곡증산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집체적토의를 거듭하였다.

대중의 지혜는 무진장하였다. 밭에 무수한 강냉이뿌리로 부식토를 만들자는 안이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각종 영양성분들이 들어있는 강냉이뿌리들을 진거름과 집짐승배설물에 섞어 쌓았다. 이렇게 하니 열이 발생하면서 강냉이뿌리속의 섬유소들이 분해되여 질좋은 부식질로 되였다.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쌀모였던 뿌리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니 좋았고 그속에 서식하던 대벌레도 없애게 되였으니 더 좋았다.

흙보산비료 역시 뇨소비료대신 진거름을 리용하는 방법으로 생산하여 논밭에 냈다.

결과 정보당 300kg정도의 뇨소비료로 6t이상의 알곡을 생산하였으며 고기생산은 그 전해보다 1.5배 늘어났다.

본사기자 정 성 일

정다운 부름—우리 분조장

전투명령

강추위가 들이닥친 어느날 배천군 수원협동농장 제5작업반 1분조 포전에는 이른아침부터 거름을 져나르는 사람이 있었다. 분조장 오택규동무였다.

사실 퇴적장으로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이런 강추위속에서 거름운반계획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걱정을 앞세웠었다. 그러나 분조농사를 책임진 자기가 주춤거리면 분조의 전진속도가 떠진다는 생각에 그는 정신을 번쩍 차렸다.

포전에는 새 거름무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얼마후 이 사실을 알고 포전으로 달려나온 분조원들은 그날 거름운반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하였다.

그날 분조원들이 다시금 심장깊이 새긴것이 있다. 당이 제시한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서 일정계획은 죽으나사나 수행해야 할 전투명령이라는것을.

진짜배기실농군

분조장의 새로운 제기에 강남군 영진협동농장 제4작업반 1분조의 농장원들 모두가 입을 딱 벌렸다. 올해에는 람조류생물활성퇴비와 알전 모기르기방법도입을 받아들인다는것이다.

비록 경험은 없었지만 분조원들은 두말없이 지지해나섰다.

그럴만도 했다. 해당 단위들을 찾아가 람조류생물활성퇴비의 우월성을 실지 제눈으로 확인한 분조장이였던것이다. 알전 모기르기방법도입도 지난해 그가 담당한 포전의 일부 면적에서 시험해보고 내린 결심이라는것을 너무나 잘 아는 농장원들이였다.

모내는기계는 물론 뜨락또르도 능숙하게 다루며 과학농법도입에서 앞보를 모르는 그가 있어 분조는 해마다 좋은 결실을 보군 하였다.

그렇다. 해마다 맡겨진 알곡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한 분조들은 례외없이 우리 당이 바라는 이런 진짜배기실농군들이 있는 단위들이다.

한식솔의 맏형

어둠짙은 맹산군 장동협동농장의 고요한 밤정적을 깨치며 누군가가 리진료소의 창문을 다급하게 두드렸다.

이윽고 문이 열리는것과 동시에 《우리 분조원이 지금 몸이 막 불덩이같습니다. 왕진을…》라고 하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가 바로 청년분조장이였다.

농장에 갓 란원한 분조의 처녀농장원에게 일도 배워주면서 그가 사회주의농촌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도록 각별히 원심을 써온 분조장이였다. 이런 분조장이였기에 앓는 그를 위해 밤길도 마다하지 않은것이다.

결코 그 한사람에게만 기울인 정이 아니다. 성격과 취미, 나이도 서로 다른 분조원들을 다같이 아끼고 위해주며 결함이 나타나면 엄한 추궁도 한 분조장이였다. 이런 맏형이 있어 분조는 화목한 한식솔로, 전투력이 강한 집단으로 되였다.

한식솔의 맏형, 이런 분조장들이 많아 우리의 농촌진지가 그렇듯 굳건한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김 성 일

과학농사열풍으로 들끓는 전야가 보인다

기상수문국 기상수문관측계기공장에서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낀다. 우리가 이 말을 다시금 새롭게 되새겨보게 된것은 며칠전 기상수문국 기상수문관측계기공장을 찾았을 때 받아안은 흥분이였기때문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 눈짐작과 손짐작으로 물관리와 비료, 농약치기를 하는것과 같은 낡은 방법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측정과 분석에 기초한 선진적인 비배관리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배인방에 들어서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전화종소리가 다급히 울리였다.

《함경남도농촌경리위원회…온도계말입니까? 농사를 과학적으로 잘 지어 대승전고를 높이 울리겠다는데 도와드려야지요.…》

지배인이 전화기를 내려놓기 바르게 이번에는 문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들이 방에 들어섰다.

《소식을 받자마자 즉시 달려오는 길입니다.…》

《농사차비기간에 무조건 생산보장하자고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온도계들을 다 생산해놓았습니다.》

잠시후 그들이 밤에서 나가자 지배인은 우리와 함께 현장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원래 공장에서는 기상관측기지들에 관측계기들을 생산보장하면서 수천개의 온도계를 더 생산하여 협동농장들에도 보내주군 하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주신 이후부터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높아져 지난 2년동안에만도 수만개의 온도계를 더 생산하였다.

그의 말을 듣는 우리에게는 함경북도에서 목격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지난 시기 도에서는 기상기후조건이 비슷한 시, 군들을 4개 지역으로 갈라놓고 그 기상관측자료에 따라 일률적으로 농사지도를 하였다. 그런데 도는 땅이 남북으로 길게 놓여있고 산과 먹지대밭이 많은 지방이다. 이런 조건에서 정확한 기상관측자료가 없이 농사지도를 한것이 미친 영향은 좋지 않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받아안고 정신을 번쩍 차린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은 한달음에 이 공장으로 달려왔다. 짧은 시일안에 도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 대기온도를 측정하는 건습온도계, 일최고, 최저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 땅속 5cm와 10cm깊이의 온도를 측정하는 푸판온도계, 땅겉면온도를 재는 온도계들을 갖춘 기상관측기지들이 생겨났다.

과학적인 측정과 분석에 기초하여 모든 영농공정들을 시, 군, 협동농장별로 적기에 과학적으로 짜고든 결과는 최고수확년도 수준들과라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던가.

그 나날 일군들은 다시금 새겨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눈짐작, 손짐작이 아니라 과학적인 측정과 분석에 기초한 과학농사를 하는데 다수확의 열쇠, 비약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작업장의 들끓는 숨결이 우리의 흥분을 고조시켰다. 우리판을 능란하게 세공하는 남성로동자들, 유리판과 눈금판을 결합시키는 작업을 재치있게 해나가는 녀성로동자들, 자기들의 제품에 자그마한 편차라도 있을세라 꼼꼼히 살펴보는 검정원들…

온도계들을 넘겨받는 평안남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의 웃음넘친 모습도 인상깊었다.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당의 높은 뜻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사회주의전야의 벅찬 숨결이 그대로 느껴져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였다.

들끓는 협동벌은 이렇게 웨치는듯싶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은 곧 진리이고 승리이다.

본사기자 장 은 영

포전담당책임제와 경쟁심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한 후 서흥군 거문협동농장 제1작업반의 알곡생산량이 그전보다 평균 2배이상 올랐다. 그 비결의 하나가 포전담당책임제를 바로 실시하여 농장원들의 사회주의경쟁열의를 높인데 있다.

작업반장은 포전분담을 실정에 맞게 하는데 힘을 넣었다. 먼저 농장원들과 함께 포전들의 등급을 정하였다. 그리고 집체적토의를 거쳐 포전들을 분고루 담당시켰다. 이때 초급일군들이 조건이 불리한 포전들을 맡아나섰다. 이에 기초하여 포전별알곡생산계획을 지력, 거리, 농사조건 등에 따라 정해주었다. 사회주의경쟁열의가 더욱 고조되였다. 특히 1분조장은 지력이 낮은 포전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땅을 기름지게 걸구고 곡식을 땀흘려 가꾸었다. 분조원들이 그 모범을 따라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뛰였다.

농장원들은 포전이 분담된 후부터 자기 포전의 지력, 토심 등을 환히 알게 되였다. 따라서 실정에 맞는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이는데 힘을 넣을수 있었다. 실례로 2분조 양정숙동무는 싹을 틔운 강냉이종자를 성형알판에 넣어 모를 키워내면 빈포기가 생기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남먼저 받아들이였다. 그후 농장원들이 저마다 이 방법을 받아들이였다.

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양되여 분조일이 잘되는것만큼 작업반전반사업이 잘되여 분배몫이 늘어났다.

본사기자 김 창 길

자강력제일주의정신으로 1단계공사완공을 위하여 폭풍쳐 내달린다

황해남도물길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황해남도물길공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물길공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이들은 황해남도물길 1단계공사를 당 제7차대회전으로 완공할 열의에 넘쳐 총돌격전을 들이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본저수지성토공사와 장석공사를 끝낸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1월말까지 530만여㎥의 토량을 처리하고 9만여㎥의 콩크리트치기, 7만여㎥의 장석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무넘이언제공사를 동시에 본격적으로 내밀고있다.

지금까지 돌격대원들은 흙물길공사의 80%, 물길굴공사의 84%, 구조물공사의 78%제선을 돌파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물길공사를 하루빨리 완공하여 황해남도 농업근로자들이 물걱정을 모르고 농사를 보다 안전하게 짓게 하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이것을 심장에 새아박고 떨쳐나선 물길공사중앙지휘부의 일군들은 당 제7차대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열의밑에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면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내밀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우기홍동무를 비롯한 지휘부의 일군들은 당에서 준 과업을 무조건 수행할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고있다. 일군들은 하루밤에도 수백리를 오고가며 부족되는 설비와 자재들을 해결해오고 어려운 모퉁이들에 날먼저 어깨를 들이밀면서 돌격대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떠밀어주고있다. 또한 시공지도를 짜고들어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모든 건설물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각 려단들에서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기 위한 투쟁이 적극 벌어지고있다.

중앙지휘부와 려단들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결과 수많은 로력과 자재가 절약되고 100여건의 발명 및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도입되여 공사속도가 비상히 떨쳐지고있다.

물길공사중앙지휘부에서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사회주의경쟁을 잘 조직하고 모든 려단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산악같이 떨쳐나선 각 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돌격전을 들이대며 많은 대상건설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황해북도려단의 일군들은 돌격대원들속에 들어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공사실태를 손금보듯이 장악하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신속히 풀어주고있다. 그리고 대대별사회주의경쟁을 의의있게 조직하고 총화평가사업을 따라세워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고조시키고있다.

돌격대원들의 열의가 날로 고조되는 속에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법들이 도입되여 많은 대상공사에서는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돌격대원들은 물길굴이 확장된데 맞게 레루를 들어내고 자동차를 들이밀어 종전에 비하여 비력치리속도를 6배나 끌어올리였다.

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지금까지 22만 2천여㎥의 토량과 암반을 처리하고 1만 3천여㎥의 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총공사량의 85%를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남도려단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면서 많은 대상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히 성천군대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완강한 공격전을 들이대여 많은 물길굴공사를 제일먼저 끝냈으며 청성시대대에서는 수백㎥의 휘틀용독재와 많은 기름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대상공사를 본때있게 내밀어 지난해 5월까지 완전히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청원군대대를 비롯한 다른 대대들에서도 힘찬 공격전을 벌려 려단이 많은 3600여m에 달하는 물길굴공사를 이달에 끝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평양시려단과 물길기계화사업소대대의 일군들은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돌격대원들을 집단적혁신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서로 돕고 뚫고나가면서 공사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함경남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합리적인 천공배치와 발파방법을 받아들이고 전기가 없으면 자동차바퀴축에 괴대를 걸어 착암기를 돌리면서 굴진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갔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려단은 많은 공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함경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짧은 기간에 470여m의 콩크리트잠판공사를 끝낸 기세로 물길굴공사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였다.

흙물길공사를 맡은 황해남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물길공사의 주인이라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떨쳐나 405만 5천여㎥의 토량과 암반을 처리한 기세로 계속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각 려단들에서는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갈 공법들과 새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제일먼저 많은 물길굴공사를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려단에서는 새로운 용접방법을 받아들여 철잠관공사실적을 2배로 끌어올렸으며 4종에 60여개의 기공구와 3종에 2400여개의 나사를 자체로 해결하여 공사속도를 높이였다.

남포시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암질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가면서 물길굴확장과 콩크리트치기, 구조물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이려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완강한 투쟁으로 하여 황해남도물길 1단계공사완공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글 특파기자 박 철
사진 본사기자 김 종 훈

또 하나의 창조물을 일떠세운 긍지 드높다.

전투지휘를 짜고들고있는 일군들

철잠관이 뻗어간다.

물길굴콩크리트치기를 다그친다.

흙물길공사를 힘있게 내민다.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맹세모임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백두의 칼바람에 불을 달고 조선혁명의 심로따라 폭풍쳐 내달리기 위한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맹세모임이 5일 백두산밀영고향집앞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백두산3대장군의 영상을 모신 백두산밀영의 모자이크벽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김경숙 광강도당위원회 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백두산밀영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대 대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선창에 따라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백두산대국의 지략한 영상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여나가겠다.

수령결사옹위의 전통, 영웅적투쟁전통을 굳건히 계승하여 백두산청년대강국의 윤명이시고 주체조선의 심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목숨으로 옹위하는 김정은제일결사대가 되겠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위대한 김정은조선의 일대 전성기로 빛내여나가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 결사관철의 제일기수가 될것이다.

인민군대에 적극 탄원입대하고 향토방위를 위한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며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으로 강성국가건설의 보람찬 전투장마다에서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겠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최첨단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해나가는 용감한 혁명인재가 되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제일선구자가 되겠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혁명을 전두에서 이끄시기에 백두산대국은 청년강국으로 천만년 무궁토록 륭성번영할것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억세게 준비해나갈것을 엄숙히 맹세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백두산밀영고향집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력사의 집에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답사기간 이들은 리명수혁명사적지, 청봉숙영지, 건창숙영지 등을 돌아보았으며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발표모임, 대련합창경연을 비롯한 다채로운 정치문화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건설 착공식 진행

우리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이 건설되게 된다.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건설 착공식이 5일 개천시 춘혁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박범기동지와 박태성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자들, 개천시안의 근로자들이 착공식에 참가하였다.

김덕훈내각부총리의 보고에 이어 현장지휘부 부책임자 리홍규, 금속공업성 부국장 김룡일, 평안남도려단 정치부장 리종균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공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조국땅우에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로동당시대의 대자연개조사업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남관개공사를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열두삼천리벌 농민들의 물에 대한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고 농업발전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평남관개물길에는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여 농민들이 물걱정을 모르고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헌신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을 건설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개천—태성호물길공사의 성과에 토대하여 평안북도와 황해북도를 비롯하여 여러 지대들의 자연흐름식물길공사를 통이 크게 작전하고 힘있게 내밀어 온 나라의 관개체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완성하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전체 건설자들과 지휘관, 일군들이 떨쳐나 열두삼천리벌의 풍요한 전야마다에 생명수를 부어주고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활짝 꽃피우는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모든 건설자들이 청천강을 전기강, 보배강, 애국의 강, 락원의 강으로 전변시킨 그 투지와 일본새로 공사장마다에서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건설을 제기일인에 무조건 끝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현장지휘부일군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공사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하여 물길건설장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도가니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지휘관들과 건설자들은 앞선 공법들과 대중적기술혁신안, 창의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최대의 공사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설계하면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이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는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빛을 뿌리도록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련관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건설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명심하고 많은 설비와 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함으로써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총돌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착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최강의 핵억제력을 보유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승리의 5월을 향한 총진군길에 차넘치는 속에 뜻깊은 2월 8일에 즈음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덕성연구발표모임이 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덕성연구발표모임 진행

김정순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녀맹일군들, 시안의 녀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녀맹중앙위원회 부장 김룡순, 중구역녀맹위원장 배명숙, 만경대구역 서산동 녀맹원 장성옥이 출연하였다.

출연자들은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민족만대의 존엄과 번영을 담보하는 자위적군사력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희세의 선군령장의 친솔위인상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해방후 전당, 전국과 함께 전군을 새 조국건설의 3대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의 첫 사업으로 평양학원을 창립하신데 이어 중앙보안간부학교, 수상보안간부학교를 조직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정규무력건설에 필요한 군사정치간부들을 키우시기 위해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끝이 없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정규군건설의 핵심부대가 마련되고 그 대오가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현대적군종, 병종건설에 필요한 기술인재와 물질기술적토대가 원만히 갖추어지게 됨으로써 정규적혁명무력건설위업이 빛나게 실현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주체37(1948)년 2월 8일 혁명적정규무력의 탄생은 백두에서 개척된 혁명무력건설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불패의 정규무력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이 백두의 친솔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당과 수령의 군대, 선군혁명위업수행의 전위대로 강화발전되여온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혁명무력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치며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선군시대 조선녀성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독자의 편지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로부터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해전 군사복무를 마치고 대학추천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한해전에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뜻밖에도 아버지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몇달사이에 부모를 잃은 슬픔으로 저는 눈물을 금할수 없었고 날과 달이 흐르면서 부모의 따뜻한 정이 못 견디게 그리워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저에게 친부모의 사랑을 대신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아버지와 군사복무를 같이한 내각사무국 일군인 김명석동지입니다.

김명석동지는 전우의 아들이자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대학공부를 하도록 저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었고 제가 행복한 새 가정을 못 제 되였을 때에는 친부모의 사랑으로 결혼상도 차려주고 저희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주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에 울려퍼진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그대로 온 나라가 화목한 한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회주의 내 조국에 대한 아름다운 찬가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김명석동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이런 훌륭한 인간들을 키운 어머니당과 고마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결심을 굳게 다지군 합니다.

동대원구역 새살림동 86인민반 안은혁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다음주에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진행된다.

7일(일요일) 서산축구경기장에서는 소백수팀과 제비팀사이의 축구 1급 남자경기가, 갈매기팀과 내고향팀, 제비팀과 묘향산팀사이의 축구 1급 녀자경기가 벌어지게 된다.

이날 오전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는 4.25체육단과 압록강체육단사이의 롱구 1급 남자경기가, 청춘거리 탁구경기관에서는 탁구 1급 남, 녀 단식, 복식, 혼성복식경기가 각각 있게 된다.

한편 이날 청춘거리 경경기관에서는 4.25체육단, 평양체육단, 기관차체육단, 상업성체육단, 조선체육대학체육단 선수들이 참가하는 탄력망점열경기가 진행된다.

서산축구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축구 1급 남, 녀경기일정은 다음과 같다.

8일 남자 경공업성:롱남산
녀자 4.25:롱화산
월미도:압록강
9일 녀자 소백수:리명수
평양:경공업성
10일 남자 기관차:선봉
평양:월미도
녀자 갈매기:묘향산
내고향:제비
11일 남자 려명:압록강
12일 남자 묘향산:제비
13일 남자 화물:경공업성

축구 1급 녀자경기는 오전에, 남자경기는 오후에 있게 된다.

설명절에 즈음하여 중국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진행

주체105(2016)년 설명절에 즈음하여 외무성에서 마련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이 5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리진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리길성부상을 비롯한 외무성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리길성부상은 지난해 중국인민이 인민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제12차 5개년계획수행에서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언급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리진군특명전권대사는 지난해 존경하는 김정은제1비서동지의 명도밑에 조선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넣으며 각 분야에서 전진을 이룩하였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렵니다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2월의 봄

해돋이를 알린 동녘하늘에 아직은 새벽이 반짝이고있는 이른새벽이다.

만수대언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고있다. 손에손에 꽃다발과 관리도구들을 들고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층층계단을 오르는 그들의 눈굴이 뜨겁게 젖어든다.

기쁠 때도 괴로울 때도, 행복한 나날에도 시련의 나날에도 언제나 력사의 이 언덕을 찾고 또 찾으며 충정의 한마음을 바치고 신념의 맹세를 굳혀온 인민이 날이 갈수록 더더욱 절절해지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만수대언덕으로 오르고 또 오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며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순결한 량심과 도덕의리심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순간도 떨어져서는 못살 어버이품, 품속에도 잊고 산적 없는 위대한 장군님 생각으로 만수대언덕에서 뜨는 해를 맞고 지는 달을 바라보며 날과 달을 이어온 우리 인민이다.

《만수대언덕을 찾으면 떠나고싶지 않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금시라도 대돌을 내리시여 우리를 한품에 안아주실것만 같습니다.》

수십년세월 만수대언덕에 올라 동상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하고있는 박창신로인의 젊은 목소리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입술을 깨물고 눈굴을 닦는다.

자강도의 두메산골에서 태여난 그는 일찍 부모를 잃었다. 하지만 조금도 고아의 설음을 모르고 자랐다.

은혜로운 사랑이 언제나 봄빛처럼 그를 감싸주었고 배움의 나래,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펼쳐주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을 떠나 순간도 살수 없음을 절감한 그에게 있어서 수령님들을 충정다해 받들어모시는것은 마땅한 본분이였고 의리였다. 그래서 박창신로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자애로운 어버이께서 계시는 만수대언덕에 올랐다.

《여기에선 위대한 수령님들을 충정과 의리로 모셔갈 그 마음이 한결같아 모두가 한식솔처럼 친근해집니다. 모이면 어떻게 하면 만수대지구를 더 잘 관리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받드는 좋은 일을 하나라도 더 찾아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주변을 쓸고 또 쓸던 한때심로인이 곁에 있는 로인들을 가리키며 우리에게 하는 말이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10대의 어린 나이에 간호원, 통신병으로 용감히 싸운 윤옥히, 피순전쟁로병들과 철도를 지켜 전시수송을 최생적으로 보장한 안은숙로인의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안겨왔다.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오늘 로화속을 헤치던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지만 심장은 그때처럼 뜨겁게 고동치고있는 혁명의 2세들이였다.

우리는 그들속에서 낯익은 모습도 찾아볼수 있었다.

사연깊은 만경대의 정갈한 샘물을 떠안고 평도업적단위들과 대전설전투장들을 찾아가는 만경대구역의 샘물할머니들중의 한사람인 백명주로인이였다.

그들은 매일과 같이 만수대언덕에 올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주변을 정성껏 관리하는 과정에 서로 낯을 익히고 마음이 통하게 되어 이제는 친동기처럼 가까와졌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충정으로 고결하고 보답으로 뜨거운 마음들이 맞려와 진정을 합치는 여기 만수대언덕에 내 조국의 참모습이 비껴있음을 다시금 심장깊이 절감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충정으로 받들어온 부모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드는 길에 이 한몸 깡그리 바치겠습니다.》

부모와 함께 만수대지구를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진정을 바쳐가고있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리정룡동무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르며 피치는 힘찬 목소리.

그것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만수대언덕을 찾는 충정의 대오속에 하나의 의지로 맥박치는 신념의 맹세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만수대언덕으로는 한없는 그리움의 물결, 다함없는 경모의 대하가 더욱 세차게 굽이쳐흘렀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도, 가장 비통한 슬픔도 이 언덕에서 체험한 인민이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그리며 2월의 만수대언덕으로 끝없이 달려오고있다. 수령과 인민의 혈연의 정, 그 어떤 힘으로도 가를수 없는 혼연일체의 위대한 화폭이 만수대언덕에 가슴뜨겁게 펼쳐지고있다.

지난 1월에만도 만수대언덕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은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의 수가 연 33만 2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가슴뜨거워지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과연 그 심장들에 무엇이 소용돌이치며 끓고있기에 만수대언덕을 오르고 또 오르게 하는것인가.

아직도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억년장설이 되여 쌓여있는 흰눈이 있다.

피눈물의 12월의 그 사연많은 흰눈,

한평생 인민의 행복과 후대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 이 땅에 내리는 찬눈을 앞장에서 다 맞으시며 심신을 짱그리 불태우신 우리 장군님이시여서 천만의 심장속에 내려쌓인 흰눈은 녹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노래한다. 2월은 봄이라고.

우리 장군님 계시기에 눈보라만리길이 있어 행복의 만리길이 펼쳐졌고 생의 마지막순간에도 인민이 맞을 찬눈을 다 안고 가시려는듯 흰눈이 펑펑 내리는 길로 해빛같은 미소를 보내시며 떠나가신 우리 장군님의 그 혼신속에 오늘뿐아니라 민족의 천만년번영의 담보가 마련되였기에 인민은 노래한다. 2월은 봄이라고.

려명이 밝아오는 만수대언덕에서 우리는 천만의 심장속에 화창한 2월의 봄을 볼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태양의 미소로 축복해주시는 승리의 길을 따라 경애하는 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우리 인민이 안아올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밝은 앞날을.

본사기자 조 경 철

내 조국의 아침이 시작되는 곳에서

새벽종소리

아직은 살라만상이 어둠속에 잠긴 새벽 5시, 인민대학습당의 종소리와 함께 만수대언덕의 높다란 층계를 오르는 발자욱소리가 새벽고요를 깨친다.

한계단 또 한계단…

지난 수십년세월 정각 새벽 5시가 되면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안고 만수대언덕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는 보통강구역 신원동 18인민반의 정금분녀성과 보통강1동 26인민반의 박화영녀성.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나라의 새벽문을 제일먼저 여시고 나라의 저녁문도 제일 늦게 닫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절절히 그리며 하루도 변함없이 만수대언덕에 오르고있는 이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랜 세월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주변관리사업에 자기들의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는 이들에게 은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오늘도 내리는 비

정천구역인민보안서 아래단위 일군인 송광동무는 지난 수십년세월 하루와 같이 만수대언덕에 올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충정의 맹세를 다지고 동상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해오고있다.

그는 잊을수 없는 피눈물의 7월 만수대언덕에서 화환이 젖을세라 옷을 벗어 비를 막았던 어제날의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이다.

20여년전 만수대언덕에 내리던 잊을수 없는 7월의 그 비는 오늘도 그의 마음속에 아니 온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끊임없이 내려고있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인생의 모든 영광과 행복은 세월의 궂은비, 찬눈을 다 맞으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고속에서 마련되고 꽃펴난것이기에.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는 그 사랑, 그 은정을 가슴에 안고 송광동무는 오늘도 충정과 의리의 한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다.

편지와 꽃송이

《…비가 자꾸자꾸 내리기에 나는 비와 말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찬비야, 너도 잘 알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 너무도 찬 눈비를 많이 맞으신 우리 대원수님들의 동상에만은 내리지 말아주렴아.〉… 이 비옷들을 보내니 비가 오는 장마철에도 우리들의 마음합쳐 대원수님들을 더 잘 모셔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이것은 몇해전 여름 평원군 평원소학교의 리철광학생이 조선혁명박물관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보내온 편지의 한구절이다.

리철광학생과 그의 어머니 홍광월녀성은 지난 여러해동안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더 환하게 모셔달라는 절절한 편지와 함께 매달림에서 피운 꽃송이들과 동상주변관리사업에 필요한 지성어린 물자들을 보내오고있다.

꽃은 비록 평양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들을 심장속에 모시고 사는 이런 고결한 마음들에 떠받들려 만수대언덕은 온 나라 어디서나 보이는 언덕, 충정과 맹세의 언덕으로 높이 솟아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 남 호

청년미풍선구자오누이의 저녁일과

우리 인민의 생활의 갈피마다에는 들여다볼수록 고결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비껴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서 저녁마다 보게 되는 오누이가 있다. 그들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오규남동무와 평양철도종합대학 학생 오혜심동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주변을 더욱 정중히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근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해오고있는 오누이,

결코 평범하게만 대할수 없는 그들의 저녁일과이다. 우리가 오규남, 오혜심오누이를 처음 알게 된것은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가 진행된 지난해 5월이였다.

대회장의 높은 연단에서 충정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을것을 굳게 결의하던 오혜심동무, 자신들을 청년미풍선구자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던 오규남동무였다.

오규남, 오혜심오누이의 가슴속에는 오늘도 소중히 간직된 어버지의 당부가 있다.

몇해전 불치의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된 아버지는 온몸의 힘을 모아 자식들의 부축을 받으며 만수대언덕에 올랐다.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한동안 서있던 아버지는 오누이의 손목을 꼭 잡고 《너희들은 이 아버지가 없이는 살수 있어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다.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그 사랑에 깨끗한 충정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마디마디 힘을 주어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는 부탁이기전에 위대한 수령님들을 충정다해 받들어모셔온 전세대가 다음세대에 하는 당부였다.

그 당부를 심장에 새기고 오규남동무는 조국을 멀리 떠나 외국류학의 나날에도 과학탐구에 열정을 다 바쳤으며 오혜심동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도 힘겨울 때도 변함없이 만수대언덕에 오르고 올랐다. 그 나날 오누이의 가정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는데 쓰일 지성어린 관리도구들도 마련하여 해당 일군들에게 보내주었다.

지녁마다 만수대언덕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과 마음속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총화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일과로 삼아온 오누이, 그들에게 있어서 잊을수 없는 그 나날은 곧 자기들이 사상정신적으로 성장하여온 과정이기도 하였다.

오누이가 청년미풍선구자로 자랑떨치고 오혜심동무가 조선청년의 최고영예인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로 자라난 남다른 긍지는 이렇듯 절세위인들을 절절히 그리며 따르는 그들의 류다른 저녁일과와 하나로 이어져있는것이다.

리 신 향

함께 걷는 길, 하나가 된 심장들

매일 아침 만수대언덕에서 솟는 해를 맞이하고 출근길의 첫 자욱을 내짚는 사람들이 있다. 평양시국토계획설계연구소의 일군들과 설계원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날을 따라 강렬해지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갈 열화같은 충정과 순결한 도덕의리심이 높이 발현되였습니다.》

10여년전 겨울 어느날 평양시국토계획설계연구소 당초급일군인 서철룡동무는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두해전부터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주변관리사업에 충정의 한마음을 바쳐오고있는 연구소의 청년동맹원인 설계원 류성옥동무에 대한 소행자료를 전해온 감동깊은 편지였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정을 깊이 간직하고 사는 처녀설계원의 마음속지향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언제인가 신문에서 들꽃소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다고, 인적드문 길가에 세워진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표식비앞에 들꽃묶음을 삼가 드린 나어린 소녀들의 모습이 눈물겹게 안겨와 그들의 마음도 함께 안고 만수대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는 류성옥동무의 이야기는 누구나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그날 서철룡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며칠후 손에 관리도구를 들고 출근길에 나선 서철룡동무는 류성옥동무와 나란히 만수대언덕에 올랐다.

그만이 아니였다. 만수대언덕으로 향한 종업원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어느때부터인가는 종업원들모두가 만수대언덕에서부터 출근길을 시작하게 되였다.

충정의 마음들이 합쳐져 하나로 된 출근길로정,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충정으로 숨결도 보폭도 함께 하는 그 출근길이 이어지는 나날에 혁명적동지애와 전투적생활기풍이 넘쳐나 집단의 단결력은 더 굳세여지고 날마다, 달마다 안아오는 성과도 자랑스러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을 받들고 평양시를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나라의 알곡생산고지점령투쟁에 이바지할 더 많은 새땅에비를 찾기 위한 토지개간계획작성에 불같은 열정을 바쳐가는 연구소집단의 투쟁열은 드높다.

충정의 한마음으로 보다 큰 창조와 혁신의 지속적속을 아로새기는 나날에 많은 사람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가슴넘치게 받아안았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 사람들과 중요초소로 떠나간 일군들은 또 몇몇이랴.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인민의 심장은 바로 이 력사의 언덕, 만수대언덕에서 영원히 하나로 맥박치며 백배천배로 커지고 억세여지는것이다.

장 정 철

◎ 절절한 그리움과 영생축원의 마음담아 ◎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에서—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평양수예연구소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향토를 아끼라, 인간을 사랑하라

부령군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관리부 부장 겸 부위원장 황진길동무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고향의 흙 한줌도 제살처럼 귀중히 여기는 일군이라는 부령군당위원회 책임일군의 이야기를 듣고 그 주인공인 군국토환경보호관리부 부장 황진길동무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난것은 한낮이였다.

《우리 부장동무를 만나려면 도로에 나가야 합니다.》

국토환경보호관리부에서 우리와 만난 부부장 정광일동무의 말이였다. 그는 마침 자기도 그곳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함께 가자고 우리를 이끌었다.

《이 길을 따라 시오리쯤 내려가면 됩니다. 부장동문 도로에 나가 살다싶이 하지요.》

그는 성큼 한발 앞서 걸으며 황진길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여 황진길동무에 대한 취재는 부령군의 도로를 걸으며 시작되게 되였다.

* *

청진에서 무산과 회령에로 이어진 부령군의 대부분 도로는 많은 지류를 가진 수성천기슭을 따라 뻗어있다. 그만큼 다리도 많다. 수십개나 된다.

황진길동무가 도로관리문제특히 다리건설에 관심하게 된데는 뼈저린 체험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은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입니다.》

그가 군국토환경보호관리부 부장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이때 후인 열여섯해전 8월말 조국의 북변에 몰아친 폐년에 보기 드문 폭우는 부령땅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밤새 쏟아부은 폭우로 하여 범람한 산골물은 부침땅면적이 극히 제한된 부령땅에서 수백정보에 달하는 토지를 순간에 삼켜버렸다. 큰물로 피해입은 살림집과 공공건물은 백수십동을 헤아리였다. 군내인민들이 모두 떨쳐나 자동차가 다닐수 있게 도로를 림시로 복구하는데만도 보름나마 걸렸으니 그때의 피해상에 대해 더 말해 무엇하랴.

큰물피해로 막혔던 도로가 열린 날 밤깊도록 군의 도로를 밟아보는 사람이 있었다. 황진길동무였다. 통나무를 가지고 림시로 건설한 나무다리우에 멈춰서서 흐르는 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그의 눈앞에는 문득 산골물이 범람하여 사품치던 그날의 광경이 또다시 펼쳐졌다. 부령땅에 대를 묻은 그였지만 그런 큰물피해는 처음이였다.

(앞으로 이번과 같은 큰물이 또다시 난다면…)

순간 그는 소스라쳐 놀랐다. 이번 큰물피해의 목격자로서, 군의 국토관리를 책임진 주인으로서 앞으로 이 땅이 또다시 피해를 입게 한다면 그것은 조국앞에 죄되는 일이며 자신의 당직량심에 수치를 남기는 일이 아닐수 없었다.

문득 그의 눈앞에는 끊어진 도로복구에 달려나왔던 군안의 주민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무너진 자기 집보다 먼저 평양으로 잇닿은 도로를 복구하기 위해 집에 올라리를 쳤던 널판자까지 뜯어가지고 나온 사람들, 주먹밥이 들어있는 함지를 이고지고 달려나왔던 녀인들, 학생소년들…

애국으로 더운 피를 끓이는 인간들, 참된 주인들이 있는 한 광란하는 자연의 피해도 얼마든지 막을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다. 그렇게 하는것이 이 땅의 공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길이고 후대들앞에 떳떳한 길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그의 사무실책상우에는 다리건설과 관련한 도서가 하나둘 쌓이게 되였다. 얼마후부터는 각이한 모양의 다리설계도면들도 생겨나게 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국토환경보호관리부의 마당에는 해마다 겨울이 오면 키를 넘는 과철무지가 생겨나군 하였다. 그것이 이른봄철이면 해당 공장으로 실려가 철근이 되여 콩크리트구조물속으로 들어가 드놀지 않는 다리가 건설되군 하였다.

설계와 시공방법이 모두 그의 머리속에서 이루어졌고 겨울이면 구내에 쌓여지는 과철더미도 그의 발기에 의해 이루어진것이였다. 그렇게 자력갱생의 불길속에 해마다 부령땅에 나무다리가 하나둘 사라져갔다.

차를 몰고 지나가던 운전사들까지도 이른봄철부터 야외에 천막을 치고 차디찬 산골물속에 뛰여들어 다리공사에 정력을 쏟아붓는 그와 종업원들을 보며 감동되여 다리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실어다주군 하였다.

그 나날에 긍지와 보람은 또 얼마나 컸던가.

지난해 5월 황진길동무와 종업원들은 이를할수 없는 격정에 휩싸이였다. 바로 부령땅의 입구인 석막로동자구에 그들이 건설한 다리우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의 걸을 이어가시였던것이다. 그 다리로 말하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던 본래의 수중다리를 헐애고 그들이 새로 건설한 다리였다.

이렇게 그들은 지난 10여년간 자체의 힘으로 근 20개의 새 다리를 건설하였다.

《이 다리가 6년전에 건설한 다리입니다. 100t짜리 자동차가 지나가도 끄떡없지요.》

정광일동무가 몇발자국 앞에 있는 다리를 가리키며 우리에게 하는 말이였다.

다리의 친주에는 《허룡1다리》라고 씌여져있었는데 친주며 란간들이 주변환경과 잘 어울려 미적으로도 손색이 없었다.

《네해전 장마철에 또다시 태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더랬는데 모든 다리들이 끄떡없었습니다. 산골물이 갑자기 불어나 들이닥쳤지만 이 수성천을 따라 부장동무가 종업원들을 이끌고 손에 피가 지도록 쌓은 장석들이 큰물을 막아냈지요. 참 저기 무산쪽으로 올라가느라면 차유령이 나지는데 거기에 우리 차유령도로관리소대가 있습니다. 꼭 들려보십시오. 도로관리소대원들은 그를 친아버지처럼 따릅니다.》

정광일동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어느덧 우리의 눈앞에는 도로관리원들과 함께 이울려 도로를 닦고있는 황진길동무의 모습이 안겨들었다.

척 보기에도 중키에 다부진 몸매며 점잖한 얼굴은 60을 넘긴 나이에 비해 퍽 정력에 넘친 모습이였다.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었지만 낯익어보였다. 일이 잘되고 성과가 큰 일터들에서 만났던 일군들처럼 그는 소탈하고 말에서도 진정이 흘기였다. 그것이 그를 구면처럼 여기게 하였다.

방금전에 함께 오며 정광일동무가 하던 말이 되새겨졌다.

《도로관리소대원들은 그를 친아버지처럼 따릅니다.》

우리가 차유령도로관리소대에 대해 말을 꺼내자 그는 대뜸 반색을 지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곳으로 가려던참이였습니다. 기자동무도 함께 갑시다.》

하여 우리는 차유령으로 향하였다.

* *

차유령도로관리소대는 읍에서 50여리가량 무산쪽으로 올라가야 했다.

도로관리소대에 이르러 차에서 내리는데 맵짠 바람이 불어쳤다. 겨울치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몇날 되지 않는다는 차유령의 날씨였다.

산중에 있는 차유령도로관리소대의 함숙건물을 보며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산뜻하면서도 덩실한 건물이 눈앞에 안겨들었던것이다.

꽃블로크로 정갈하게 둘러친 키낮은 담장이며 건물주변을 따라 여러가지 무늬모양으로 이어진 포장길, 지녁해살을 받아 반짝이는 창문들은 절보기에도 곱들여 지은것임을 어렴지 않게 짐작할수 있었다.

마침 도로보수작업을 마치고 령길을 내리던 소대원들이 황진길동무를 뵈여보고 달려왔다. 그속에는 나어린 처녀들도 있었는데 마치 멀리 헤여졌던 아버지를 만난듯이 그의 팔소매에 매달려 인사를 나누며 응석을 부리는 모양은 친딸들의 모습을 방불케 했다.

우리는 소대원들과 함께 건물의 내부도 돌아보았는데 더욱 훌륭했다. 크게 두칸으로 되여있는 방들에는 이불장과 옷장, 텔레비죤수상기와 록화기, 증록기, 손풍금, 기타, 여러가지 도서, 윷놀이판, 장기판 등 문화정서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이 그윽히 갖추어져있었다. 산뜻한 타일을 붙인 세면장이며 한층칸은 수도의 어지간한 후생시설에도 짝지지 않을상싶었다. 그 모든것들을 보여주며 소대원들은 황진길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그칠줄 몰랐다.

소대장 리정학동무는 소대에 바쳐진 그의 진정은 비단 거기에만 깃든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앞에 한권의 사진첩을 꺼내놓았다. 거기에는 지난해 8월 소대원들모두가 백두산에 올라 찍은 사진들을 비롯하여 백두산답사길에서 찍은 사진들로 꽉 차있었다. 바로 그속에 황진길동무의 모습도 있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한권의 사진첩속에는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소대원들을 걸음걸음 대바르게 키우며 이끌어온 참된 일군의 삶이 응축되여있는듯싶었다.

바로 그래서이리라, 나어린 청년들로 차유령도로관리소대가 조직되여 처음으로 수천m의 령길구간에 석축쌓기를 성과적으로 완성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며 규모있게 쌓아올린 석축앞에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흘린것은.

그런 심정으로 지난해에는 군당위원회의 책임일군과 함께 소대원들의 희망까지 하나하나 헤아려보며 상급학교로 적극 떠밀어보내준 황진길동무였다.

소대원들은 하나같이 말하였다. 부장동지는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 그 부름속에는 눈먼사랑이나 얄팍한 인정이 아니라 동지들에 대한 웅심깊은 사랑을 지닌 황진길동무에게 주는 집단의 믿음이 깃들어있었다.

우리는 여기에 황진길동무가 차유령도로관리소대원들과 함께 높은 령길의 굽이굽이에 흘린 땀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는 적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향토애를 풍가하는것이기때문이다.

* *

길지 않은 취재였다.

그러나 이 땅의 곳곳에 천갈래만갈래로 뻗어나간 도로들과 령길들에 헌신의 구슬땀을 묻어가는 아름다운 인간들을 알게 된 취재였다.

바로 그런 아름다운 인간들이 가꾸어가는 귀중한 내 조국이다.

본사기자 신 현 규

역적패당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인권범죄자들의 단말마적발악

인간의 자주적권리가 가장 철저하게, 가장 빛나게 실현되고있는 나라는 우리 공화국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와 인권은 하나로 결합되여있다. 인권옹호를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제도화한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참다운 인권의 리상향이다.

그런데 외세추종과 매국배족이 뼈속까지 슴배여있는 가련한 식민지노복의 무리, 상전의 사타구니나 핥는 비루먹은 개무리가 가장 아름다운 이 인권의 화원을 악의에 차서 헐뜯고있다. 병적이라고 할 정도로 쉴새없이 그 무슨 《북인권》에 대해 주절대고있는 남조선의 정치시정배들이 얼마전 말썽많은 《북인권법》이라는것을 끝끝내 채택하기로 하였다. 국제적으로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들을 안고있고 그때문에 남을 넘볼 경황도 없는자들이 바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광대극을 연출하였다. 실로 황당하고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그야말로 언어도단의 극치이다.

인권은 무엇보다도 국가주권에 의해 담보된다.

자주권을 외세에게 송두리채 내맡긴 피뢰들은 인권에 대해 운운할 꼬를만 한 자격도 체면도 없다.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게 서슴없이 팔아먹는 식민지주구, 파쑈폭군이며 사회의 기생충인 역적패당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떠들어대는것이야말로 신성한 인권에 대한 모욕이고 우롱이며 카소로운 정치만화이다. 미국의 군사적강점밑에서 남조선인민들이 얼마나 미참한 죽음과 치욕을 강요당했고 또 지금 얼마나 참혹한 피해를 입고있는가. 포악한 양키들에게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치떨리는 만행을 감행한 미제야수들에게 《동맹관계가 손상된다.》는 리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쓸개빠진자들이 바로 남조선보수패당이다.

《보안법》이 무섭게 독을 쓰며 정의와 진리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파쑈의 암흑천지도 바로 남조선사회이다.

현 남조선집권세력은 《유신》독재의 때가 진하게 묻은 악명높은 파쑈광들이며 장권과 전횡이 체질화된 폭군들이다. 이런자들이 통치하는 남조선에서는 파거의 피비린 암흑시대를 방불케 하는 무시무시한 살풍경이 매일같이 펼쳐지고있다. 바른말 한마디해도 《간첩》이나 《종북》의 감투를 쓰고 감옥에 끌려가야 하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요구해도 《테로세력》으로 몰리워야 한다.

애당초 남조선에는 한줌도 못되는 매국노들이 근로대중의 피땀을 짜내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인민들을 마음대로 짓누르고 억압할수 있는 특권, 대중을 기만하고 우롱할수 있는 자유만이 있을뿐이다. 보수패당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서민들을 위한 정치》, 《민주주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라는것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가장 부패한 반인민적사회의 진면모를 가리우기 위한 한갖 요설에 지나지 않는다.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해 목터지게 광고하는 정신병자들의 개나발을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남조선사회의 처참상을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가 있다. 서울시 관악구의 어느 한 교회앞에는 버려지는 갓난아이들을 담아놓는 용기가 있다. 여기에 피덩이같은 갓난아이들이 태줄을 단채로 한달에 평균 20-25명씩 버려지고있다. 현실이 이토록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보수패당은 《입양》이 《부모없는 어린이보육》을 위한 최상의 방도라느니, 미국과 같은 나라에 《입양》되면 리로운 점이 많다느니 뭐니 하면서 그것을 장려하는 놀음을 벌리고있다. 깽혈한들의 이런 반인민적정책과 미국식생활양식의 후과로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버리거나 살해하고 팔아넘기는것과 같은 아동학대풍조가 만연하고 고아원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협잡소굴로 되고있으며 그속에서 불쌍한 아이들이 유실과 매질로 길들어져 사회의 부랑아로 전락되고있다. 남조선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근로인민대중의 지옥이고 무덤이며 그 어떤 미래도 행복도 없는 암흑사회, 세계최악의 인권동토대이다. 황금만능, 약육강식, 인간생명경시의 범죄와 풍조가 지배하는 남조선사회에 인간생지옥이라는 오명이 붙은것은 당연하다.

《독기와 독설만이 가득찬 악녀》, 《얼음공주》로 악명높은 현 남조선집권자의 파쑈독재가 살판치는 세상에서는 애당초 그 어떤 인권도 존재할수 없다는것이 세상사람들의 한결같은 정이다. 반역패당의 반인륜적, 반인민적악정을 끝장내지 않는 한 남조선은 언제 가도 암흑과 불행의 인권유린사회로 남아있을것이다. 그런데도 제 집의 궤진 창호지구멍으로 남의 집대문 흉본다고 인권유린의 원흉들이 그 누구의 《인권》이 어쩌니저쩌니 하고 나발질하며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리고있으니 이 얼마나 파렴치한자들인가.

역적패당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하여 떠드는것은 저들의 추악한 반인민적본성을 감추고 인권의 리상향인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에 먹칠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끈질긴 제재와 압살책동속에서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약동하는 젊음으로 만난시련을 뚫고 강성국가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세계정치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의 지위와 영향력은 비할바없이 높아지고있다. 력사의 모진 광풍을 밀어내며 파감히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억센 기상앞에서 어리석은 망상을 추구하던 적대세력들은 전률하고있다.

저들의 헛된 야망이 풍지박산난데 당황망조한 괴뢰역적패당은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라도 잡는 격으로 《인권》모략소동에 기대를 걸면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다. 하지만 제아무리 모략광대극을 련일 펼치여도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우려는 격의 부질없는 망동이다. 반역무리들이 아무리 《인권》이니 뭐니 하고 악청을 뽑아도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흐려놓을수 없고 천만군민의 굳건한 일심단결을 해칠수 없다. 우리 인민은 남조선보수패당이 《인권》의 간판밑에 입에 재거름을 물고 우리 공화국을 헐뜯는 수작을 벌든 고양이의 가냘픈 신음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지금 남조선보수패당이 반공화국《인권》모략에 갈수록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지만 그것은 대결정책의 총파산을 막기 위한 헛된 몸부림에 불과하다. 반공화국적대세력이 고립압살책동에 아무리 발광적으로 매달려도 우리 공화국은 끄떡없이 기세좋게 전진하며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칠것이다.

온 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단죄규탄속에 갈수록 진퇴량난의 구렁텅이에 깊숙이 빠져들고있는것은 다름아닌 남조선보수패당자신이다.

민족내부에 불화와 반목을 조성하고 대결과 전쟁을 불러오는 우환거리는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악랄하게 역행하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만고죄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천백배로 결산하고야말것이다. 역적패당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은 그들자신의 처참한 파멸로 막을 내리게 될것이다.

허 영 민

전쟁기운을 고취하는 치졸한 광대극

남조선보수패당이 반공화국모략과 동족대결에 이골이 난 반역무리로 락인된지는 이미 오래다. 이자들이 짝하면 《북의 도발》이라는것을 외워대며 《천안》호사건을 비롯한 유치하게 꾸민 엉터리남조국들을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고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써먹어왔다는것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세살적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보수패당의 이 추악한 기질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 그것은 괴뢰보훈처가 얼마전 집권자에게 보고한 《2016년 업무계획》이라는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괴뢰당국은 올해부터 《천안》호사건이 발생한 날을 이 사건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사건에 대한 그 누구의 《도발》을 상기하고 《북방한계선수호의지》를 다지는 《서해수호의 날》로 운영한다고 한다. 보훈처괴뢰들은 《서해수호의 날》이 그 무슨 《국민의 단합》과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통일시대기반을 구축》하는 《안보다짐의 날》이 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욱소리뿐이라고 동족대결에 환장한 남조선보수패당에게서 다른 좋은 소리가 나올리는 만무하다. 하지만 이자들이 《천안》호사건을 비롯한 저들의 반공화국모략과 무장도발의 산물들을 또다시 우리와 련결시키며 그 무슨 《서해수호의 날》이라는것까지 운영하려고 날뛰는것은 도저히 스쳐지날수 없다. 바로 거기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리용하여 사회전반에 동족대결광기를 계속 불어넣음으로써 반민족적인 《안보의식》을 기초로 우리와 한사코 맞서보려는 흉심이 짙게 깔려있다.

2010년 3월 26일에 일어난 《천안》호사건이 우리에게 《도발》의 감투를 씌우고 그것을 구실로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도발소동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해 제손으로 숨한 사병들을 제물로 바친 괴뢰보초병들의 특대형반공화국모략사건이라는것은 이미 널리 폭로된 사실이다. 그해 11월 23일 남조선군부불한당들은 북침을 가상한 《호국》전쟁연습에 광분하면서 우리측령해에 포탄을 마구 란사하는 무장도발을 감행하다가 영용한 우리의 인민군장병들의 단호한 불벼락에 의해 홍피를 갈기였다. 이것이 연평도사건이다. 《제2연평해전》이라는것도 남조선호전광들이 2002년 6월 29일 꽃게잡이에 나선 어민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우고 계획적인 군사적도발에 나섰다가 응당한 징벌을 받은 사건이다. 보다싶이 사건들에는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다 괴뢰패당의 비렬한 모략과 전쟁도발음모가 비껴있다.

남조선통치배들은 해마다 이날들이 오면 《추모행사》따위를 벌려놓고 닭똥같은 눈물을 쭉쭉 흘리며 가슴만 쥐여뜯었다.

그런데 현 남조선집권세력은 《천안》호사건과 연평도사건 등과 관련하여 단순히 《추모행사》놀음에만 그친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족대결을 선동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판을 더욱 크게 벌렸다. 이리하여 괴뢰해군 제2함대의 《안보공원》에 《천안》호사건과 관련한 전시장이 생겨나고 《《천안》호기념관》이라는것까지 흉한 몰골을 드러냈다. 대결광신자들은 바로 이런 곳들에 괴뢰군사병들은 물론 일반시민들과 어린 학생들까지 끌어들여 동족을 악의에 차서 헐뜯고 북침전쟁을 선동하였다. 지어 저들내부에서도 수치스러운 참패로 락인된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사건을 그 누구의 《도발》을 막아낸 《승리의 해전》, 《승전》으로 광고하며 전쟁광기를 부리였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나중에는 그 무슨 《서해수호의 날》까지 고안해내여 괴뢰군사병들과 주민들에게 동족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심, 호전성을 주입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사회전반에 극도의 동족대결기운을 조장하여 련북통일운동을 말살하며 그에 토대하여 북침야망을 한사코 실현하자는것이 남조선보수패당이 추구하고있는 흉악한 속심이다.

현 남조선당국이 출현한 이후에도 북남관계는 개선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험악한 파국에로 치달고있다. 그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은 현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이 《도발》이니 뭐니 하고 동족을 터무니없이 중상모해하며 반공화국대결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것으로 하여 북남사이에는 화해와 평화가 아니라 불신과 전쟁의 기운만 고조되고있다.

본사기자 심 철 영

미제침략군의 세균전실험만행을 비호묵인한 보수패당

남조선보수패당이 남조선강점 오산미공군기지에 탄저균과 함께 페스트균까지 함께 반입되였다는것을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1월 21일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에 대해 폭로하였다.

그에 의하면 남조선당국은 지난해 5월말 미군의 탄저균불법반입행위가 드러난지 4일만인 6월 1일에 벌써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뿐아니라 페스트균까지 끌어들여 세균전실험을 감행한 사실을 알고있었다 한다.

탄저균반입사건으로 남조선도처에서 반미항쟁이 폭발적으로 터져오르고 각계에서는 이외에 다른 균제도 반입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혹이 수없이 제기되였다.

그러나 미군은 물론 남조선보수집권패당도 6개월동안 함구무언하다가 지난해 12월에야 서울 용산미군기지에서 15차례의 탄저균실험을 하였으며 페스트균도 함께 반입된 사실을 폭개하였다.

이번에 민변의 폭로로 미군의 범죄적인 세균전실험만행을 암암리에 묵인한 저들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자 남조선당국은 탄저균사건을 조사하면서 페스트균반입사실을 확인하게 되였다느니,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정확한 결과를 알려주려다가 늦어졌다느니 뭐니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있다.

보수패당은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을 엄중히 위협하는 미제침략군의 세균전실험만행을 뻔히 알면서도 미군을 두둔하였으며 더우기 국방부 장관이라는자는 상전을 찾아다니며 《쥬피터계획》이 의미있는것이라고 줴치며 그것을 더 발전시킬것을 애걸하기까지 하였다.

동족대결을 위해 외세와 손잡고 인민들을 거리낌없이 세균무기실험대상으로 삼으며 그것을 합리화하는 남조선당국의 망동은 온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반공화국대결책동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통일의 미래를 교살하는 범죄의 소굴

보도에 의하면 지금 남조선통일부가 그 무슨 《어린이기자단》이라는것을 모집하는 광대극을 펼치고있다. 《어린이기자단》은 올해 3월부터 1년을 기한으로 조직되며 인원은 300명이라고 한다. 올해까지 다섯번째로 조직되는 《어린이기자단》은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었던 괴멸박역도의 집권하에서 처음으로 생겨나 당국이 짜준 각본에 따라 《통일》주제의 기사작성, 《통일관련현장체험》 등의 얼뜨기놀음을 벌려왔다.

어린이라고 할 때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은 그들의 천진란만한 눈동자이다. 거짓과 가식을 모르고 사실그대로 새겨넣는 사진기와도 같은 그 눈동자에 남조선통일부패거리들은 과연 무엇을 새겨넣으려 하는가.

력대로 남조선통일부라는것은 통일의 간판을 내걸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치며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반통일모략의 소굴로 되여왔다. 남조선통일부가 한것이란 반통일의 원흉인 미국상전의 구미에 맞게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정책을 고안해내고 북남대화와 협력을 방해하면서 동족대결의식을 고취한것밖에 없다.

남조선 각계는 통일부를 《반통일부》, 《대결부》라고 규탄하면서 《통일을 반대하면 통일부 장관이 된다.》고 야유조소하고있다.

반통일에 환장한 이런 극악한 대결미치광이들이 나중에는 어린이들에게까지 마수를 뻗치면서 《기자단》조작으로 그들의 순진한 동심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의식을 심어놓으려고 획책하고있다. 《어린이기자단》이라는것을 리용하여 북남대결기운을 더한층 조장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제제통일》책동을 정당화하려는것이 반역패당의 흉심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보수집권세력이 벌리고있는 그 무슨 《안보교육》과 력사교과서《국정화》소동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괴뢰당국의 반통일대결책동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을 올바로 볼수 있는 능력마저 상실한 정신적불구자로 전락되고있다.

최근년간에도 남조선당국은 청소년들을 《현장체험》의 간판밑에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끌어내여 《참관》이라는것을 시키면서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였다. 그 결과가 어떻겠는가 하는것은 뻔하다.

군사분계선은 민족분렬과 북남대결의 상징이다. 그러면 군사분계선은 누구때문에 생겨났는가. 다름아닌 미국때문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결광신자들은 방대한 무력이 초긴장상태로 대치되여있는 군사분계선일대에 흰 명주같이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은 어린 마음들을 세워놓고 숭미사상과 동족대결의식을 주입시키고있다. 통일조국의 역군으로 되여야 할 나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이것이야말로 용납 못할 민족반역행위이다.

그 엄청난 죄악에 대해 들이켜보아야 할자들이 오히려 《어린이기자단》이라는것까지 고안해내여 그것을 동족대결, 《제제통일》실현의 도구로 써먹고있으니 이런 극악한 반통일역적들을 어찌 그냥 둘수 있겠는가.

남조선통일부가 《어린이기자단》이라는것을 통해 벌려놓는 놀음들이 북남관계에 백해무익하고 동족대결을 더욱 조장하게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명색이 통일부라는것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좋은 일을 하지는 못할망정 사대매국과 반통일책동에 환장하여 철부지어린이들까지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내몰고있는것은 온 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현실은 남조선통일부야말로 북남관계는 물론 통일의 미래마저 교살하는 반민족적범죄의 아성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통일부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반대하면서 동족에 대한 모해와 북남대결에 계속 광분한다면 초래될것은 전쟁밖에 없다.

이런 반민족적인 대결부, 전쟁부를 과연 그대로 둘수 있겠는가. 남조선인민들이 통일부를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암적존재로 락인하면서 역적무리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장 임 향

섬나라 족속들의 속통은 갈데 없다

일본정객들의 간특성과 철면피성이 도를 넘고있다. 수상 아베를 비롯한 정부의 고위인물들이 줄줄이 나서서 성노예문제가 남조선과 완벽하게 《합의》되였다고 요란스레 떠들어댄 이후 놀아대는 꼬락서니가 그것을 보여준다.

전 문부과학성 부상이였던자는 자민당의 외교관계합동회의라는데서 성노예문제와 관련하여 《직업적인 매춘부들이였다. 그들을 희생자처럼 대하고있는 선전공작에 지내 기만당하고있다.》고 제치면서 피해자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칼질을 해댔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일본외상 기시다가 국회연설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목청을 돋구면서 저들의 침략야욕을 세계앞에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였다.

뻐뚤어진 물리판, 력사판에 들씌어있는 일본정객들의 입에서는 구렁이가 나가는지 뱀이 나가는지 모를 망발들이 거침없이 튀여나오고있다.

보다 엄중한것은 일본반동들이 남조선당국자들을 얼려넘겨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를 만들어낸 후 일본군성노예강제련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공식립장을 유엔기구에 제출한것이다.

그야말로 간특하기 그지없는 일본반동들만이 할수 있는 너절한 주태이다.

과거 일제가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녀성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전쟁마당에 끌고다니면서 치욕스러운 성노예살이를 강요하다가 죽음에로 내몬 사실은 세상이 다 알고있다. 이것을 확증해주는 자료는 수없이 발굴되였으며 지금도 발굴되고있다. 간악한 방법으로 타민족을 학살하고도 력사적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 싫어하며 그것을 정당화해나서는것이 섬나라 일본의 고질적인 악습이다. 일본정객들에게 한쪼각의 도덕적량심이 있다면 자기 나라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돌이켜보고 성근한 자세와 립장에 서야 할것이다.

그러나 일본정객들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오늘에 와서까지 일본에서는 《과거지사에 대해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자식들과 손자, 그 후세까지 계속 사죄하게 하는 숙명을 지니게 할수 없다.》는 소리들이 왕왕 튀여나오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이 아무데서나 돈주머니를 흔들어대고있는데 어기에도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교도성장》을 자랑하는 일본의 산업발전의 기초가 과연 누구의 피와 땀, 재부로 축성되였는가. 일본이 덮고있는 《경제대국》이라는 비단이부자리에는 수천만 조선인민의 피와 땀이 질벅히 슴배여있다.

부언하건대 조선인민에게 끼친 인적, 물질문화적 및 정신도덕적손실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채로 바쳐도 도저히 배상할수 없는것이다.

산이 높아야 그늘이 크다는 말이 있다.

전세대들의 좋은 속통머리를 그대로 넘겨받은 일본의 정객들이기에 오늘까지도 과거침략의 력사적책임에서 빠져나가보려고 교활하게 놀아대고있는것이다. 오죽했으면 국제사회가 일본을 두고 정치난쟁이라고 아유조소해오고있겠는가.

일본반동들이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부정해나서는것은 그러한 고질적인 악습과 파렴치성때문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언제인가는 반드시 그 력사를 되풀이하여 《해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야심과 그들나름대로의 면밀한 타산이 깔려있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패전후 반세기이상 군국주의부활을 맹렬히 추진시켜왔다.

일본군국주의는 이미 허상이 아니라 위협한 정치적, 군사적실체를 가진 아시아의 침략원흉으로 등장하였다. 일본이 과거침략사를 한사코 부정하며 군국주의사상을 류포시키는 주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이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나라들에서 감행한 전대미문의 살인, 강간, 랍치, 략탈행위가 권모술수를 쓴다고 해서 부정되고 사라질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세계는 특대형반인륜적범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놀아대는 일본에 환멸을 느끼고있다.

중국과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리해하산》으로부터 출발하여 력사를 부인하려는 처사를 준렬히 규탄하면서 일본이 솔직하고 책임적인 자세로 나올 때만이 아시아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일본정객들은 우선 력사앞에 정직해야 하며 인간앞에 성실해야 한다. 정치에 앞서 인간이 있고 법률에 앞서 량심과 도덕이 있다.

일본반동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섬나라 족속들의 그 좁은 속통을 가지고서는 세계의 눈밖에 나게 된다는것을.

라 명 성

아프리카나라들 반테로투쟁에서 단결강화 호소

케냐아, 나이제리아, 소말리아 대통령들이 1월 27일 케냐아의 엔도페트에서 있은 한 의식에서 반테로투쟁에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들은 신앙도 없는 테로분자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극악한 만행들을 감행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로부터 테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국제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 어느 나라도 이 투쟁에서 제외될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테로를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자기 나라 정부의 립장을 강조하였다.

전염병방지투쟁에 떨쳐나설것을 강조

브라질대통령 딜마 바나 로우세프가 1월 29일 전염병방지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전체 인민에게 호소하였다.

그는 정부가 지금 군대를 동원하여 전국적범위에서 지카비루스를 퍼뜨리는 모기를 박멸하기 위한 잠복니야를 개시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모든 주민들도 비루스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에 적극 합세해나서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지역의 통합을 다그칠데 대해 언명

에꽈도르외무상 리까르도 빠띠뇨가 1월 26일 지역의 통합을 다그칠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 곧 따친 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국가공동체 수뇌자회의가 진행되게 된다고 하면서 이것은 지역의 통합과정을 전진시킬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회의를 통하여 지역나라들이 외세의 통제나 간섭이 없이 지역문제를 자체의 단합된 힘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강철생산 증대

이란에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1 260만t이상의 강철을 생산하였다.

이것은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0.7%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최근 이란신문 《마이덴쉴 트리뷴》이 이에 대해 밝혔다.

마약 압수

알제리군대가 1월 29일 서북부국경지역에서 반마약작전을 벌렸다.

작전과정에 5명의 마약밀수업자들이 체포되고 1 550kg의 카나비스와 여러대의 자동차가 압수되였다.

국제비행장확장공사 추진

짐바브웨가 빅토리아폭포국제비행장확장공사를 추진하고있다.

1월 29일 정부는 2013년에 시작된 확장공사 1단계기간에 새 항공역사와 도로망, 주차장건설이 완공되고 활주로가 확장되였다고 밝혔다.

2단계에서는 남은 항공역사를 개건하게 된다.

올해 5월에 공사가 완공되여 운영을 시작하면 비행장의 년간 려객수송능력은 현재의 50만명으로부터 20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다.

국내총생산 장성

메히꼬에서 지난해 국내총생산이 2.5% 장성하였다.

특히 농업, 수산업, 광업, 림업부문에서 생산이 많이 늘어났다 한다.

1월 29일 이 나라 통계국이 밝혔다.

에이즈방지 노력

잠비아에서 에이즈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정부는 앞으로 2년 남짓한 기간에 녀성들속에서 에이즈비루스감염률을 40% 줄일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많은 자금을 돌리고있다.

파키스탄에서 남새수확

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한 침략무력증강책동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군사적간섭을 위해 무장장비증강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1월 29일 UPI통신은 미해군이 보잉회사에 해상감시 및 정찰임무수행에 리용할 최신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20대를 주문하였다고 전하였다.

이것은 군비경쟁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 *

일본이 침략무력증강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최근 NHK방송이 밝힌데 의하면 1월 26일 일본항공《자위대》가 31일부터 《F-15》전투기비행대를 1개로부터 2개로 늘이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오끼나와현의 나하기지에 있는 《F-15》전투기가 약 10대 더 늘어나 40대에 달하게 된다.

일본이 재침야망실현을 위한 무력증강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1월 31일 일본항공《자위대》가 오끼나와현의 나하기지에 40대의 《F-15》전투기로 구성된 제9항공단을 조직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책동은 주변나라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팔레스티나령토에 대한 이스라엘강점책동 비난

요르단국회 하원 의원이 1월 26일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티나령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점책동을 비난하였다.

그는 팔레스티나령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점을 끝장내는것이 중동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된다고 말하였다.

자유와 독립에 관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립장을 강조하면서 그는 꾸드스의 성지들에서 감행되는 이스라엘의 폭압만행을 종식시킬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61020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6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교육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